
공무국외 출장 결과보고서



■ 국 가 : 뉴질랜드, 호주

■ 기 간 : 2015. 8. 5. ~ 8. 14.(8박 10일)



충 청 남 도 의 회
(교육위원회)

< 목 차 >

I . 공무국외 출장개요	1
1. 목적 및 개요	3
2. 업무수행 분담	4
3. 출장 일정	5
3. 주요 착안사항	7
II . 주요 출장내용	11
1. 뉴질랜드 지역	13
2. 호주지역	21
III . 기타활동	39
IV . 우수사례	45
V . 출장을 마치고	51

▣ 참고자료 - 방문국가 현황

I . 출장 개요



I

공무국의 출장개요

1. 목적 및 개요

- ◇ 교육시스템 혁신을 위한 외국의 교육제도 운용 내용의 조사·비교를 통한 전문성 신장
- ◇ 국제화 시대에 따른 연수국의 교육제도와 문화 인식 증대를 통한 교육 운영 활성화 도모
- ◇ 각종 교육정책과 시설에 대한 벤치마킹으로 충남 교육현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 마련

○ 기 간 : 2015. 8. 5.(수) ~ 8. 14.(금)(8박10일)

○ 참여인원 : 14명(의원 8, 의회사무처 4, 충남교육청 2)

- 의 원(8명) : 홍성현 위원장, 맹정호 부위원장, 김석곤
송덕빈, 유익환, 김종문, 서형달, 장기승 의원
- 의회사무처(4명) : 수석전문위원 박범관, 전만철, 김규수, 이종삼
- 충남교육청(2명) : 행정국장 이성우, 류동훈

○ 지 역 : 뉴질랜드, 호주

○ 주요 연수내용

분 야	연 수 내 용
교육과정	◦ 초, 중 교육과정 중 핵심교육정책에 대한 현황 ◦ 학교폭력 예방, 학교부적응 학생 대응방안 및 정책 ◦ 특수학교 운영실태 및 배려 계층을 위한 학교시설물 비교 분석 ◦ 통합학교의 장·단점 비교 분석 ◦ 자연 친화적인 환경교육 현황 ◦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는 교육현황 분석

	◦ 다문화 정책 및 프로그램 현황
직업교육 평생교육	◦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석 ◦ 직업교육의 현장 적응 효과 현황 ◦ 지역사회에서 도서관의 역할 및 프로그램 현황
교육행정	◦ 학교시설물 및 학교 환경 현황 ◦ 교육정책과 교육지원청의 역할 현황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시설물 현황 분석

2. 업무수행 분담

분 야 별	담 당	착 안 사 항	비 고
계	총 14명		
교육제도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홍성현 김석곤 서형달 송덕빈 의 원	○ 교육과정 운영 및 현황 ◦ 초, 중 교육과정 중 핵심교육정책에 대한 현황 ◦ 학교폭력 예방 및 정책 ◦ 특수학교 운영실태 및 배려 계층을 위한 제도 ◦ 통합학교의 장·단점 비교 분석 ◦ 자연 친화적인 환경교육 현황 ◦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는 교육현황 분석 ◦ 다문화 정책 및 프로그램 현황 ○ 다문화 및 부적응 학생 지원 정책 ◦ 외국인 교육 및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 ◦ 부적응 학생,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다양한 교육지원 정책을 분석한 벤치마킹	의원
직업교육 평생교육 및 교육정책	맹정호 유익환 장기승 김종문 의 원	○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 운영 ◦ 전문 직업인 양성을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 현황 분석으로 전문계고 육성방안 모색 ◦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설 현황 및 프로그램 운영 실태 파악	〃

분 야 별	담 당	착 안 사 항	비 고
		○ 교육행정 지원 현황 ◦ 학교시설물 및 학교 환경 현황 ◦ 교육정책과 교육지원청의 역할 현황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시설물 현황 분석	
자료수집	박범관 전만철 김규수 이종삼	○ 의원 국외출장 지원 및 자료수집 - 방문지 정보 수집 - 홍보자료 및 결과보고서 작성 - 연수준비 및 수행	
충 남 교육청	이성우 류동훈	○ 우리나라 교육정책과 선진국 시책 비교 - 교육행정 지원 방법, 교육과정, 역점교육정책, 직업교육, 인성교육 등 방문, 기관 자료 수집 및 정보공유를 통한 교육정책 벤치마킹	

3. 출장 일정

날 짜	장 소	교통편	일 정	비 고
제01일 8/5 (수)	인 천	KE 129	인천 국제공항 출발 (비행시간 11시간 20분)	
제02일 8/6 (목)	오클랜드 로토루아	전용차량	- 오클랜드공항 도착 ◎ ANI - Auckland Normal Intermediate - 중학교 견학 → 학교운영 및 교육과정 현황 분석 - 로투루아로 이동	

날 짜	장 소	교통편	일 정	비 고
제03일 (8/7 (금))	로토루아	전용차량	◎ LYNMORE PRIMARY SCHOOL방문 - 초등학교 → 초등교육 정책 현황 분석 ◎ 탐방 - 테푸이아 마오리 민속 마을 탐방 →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는 교육 현황 분석	
제04일 8/8 (토)	로토루아 오클랜드	전용차량	◎ 탐방 - 아그로돔 농장 → 직업교육의 성과 및 현장과의 연계성 분석 - 오클랜드로 이동	
제05일 8/9 (일)	오클랜드 시드니	VA143 전용차량	- 오클랜드 출발 - 시드니 도착 ◎ 탐방 -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견학 → 자연 친화적인 환경 교육 현장 탐방 ◎ 공식일정 - University of Western Sydney - 견학 → 대학 환경 및 교육시설 현황 → 시드니 대학생과 대화	
제06일 8/10 (월)	시드니	전용차량	◎ 공식일정 - EVANS HIGH SCHOOL - 고등학교 → 다문화 학생 정책, 교육 프로그램 비교 분석 ◎ 탐방 - 야생동물원 자연 교육현장 탐방 → 자연 친화적인 환경 교육	
제07일 8/11 (화)	시드니	전용차량	◎ 공식일정 - NSW 주 교육청 방문 → 우리 교육정책과 교육지원청의 역할 비교 분석	
제08일 8/12 (수)	시드니	전용차량	◎ 공식일정 - St.CHARBELS SCHOOL-사립학교 - 유치원~12학년 과정의 남녀공학학교 방문 → 통합학교의 장단점 비교 및 벤치마킹 ◎ 공식일정 - 류00 충청향우인과의 만남 → 한국교육과 호주 교육 비교 평가 등 대화시간	

날 짜	장 소	교통편	일 정	비 고
제09일 8/13 (목)	시드니	전용차량	◎ 공식일정 - State Library at custom House 시드니시립도서관 방문 → 도서관 역할 및 프로그램 비교 분석	
제10일 8/14 (금)	시드니 인천	KE122	시드니 출발 인천 도착	

4. 주요 착안사항

방문 일자	방 문 지	주요 착안사항
8.6.(목)	〈뉴질랜드 - 오클랜드〉중학교 Auckland Normal Intermediate http://ani.school.nz/	○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핵심교육정책에 대한 비교 분석 ◦ 학생진로교육을 위한 현황 및 우수사례 ◦ 학교 부적응 학생 대응방안 및 정책 ◦ 학생중심의 교육정책 및 현황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현황
8.7.(금)	〈뉴질랜드 - 로투루아〉 초등학교 LYNMORE PRIMARY SCHOOL http://www.lynmore.school.nz/	○ 특수학급 운영실태 및 배려 계층을 위한 학교시설물 비교 분석 ◦ 학교 안전 시설물의 현황 및 학생을 배려 하는 학습 환경 현황 ◦ 특수교육 지원현황 및 프로그램 운영 실태 ◦ 다양한 문화 활동 현황 ◦ 직장인을 위한 학생 돌봄 프로그램 현황
8.7.(금)	테푸이아 마오리민속마을	○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는 교육현황 분석 ◦ 조상의 역사, 전통을 이어가기 위한 교육 ◦ 전통가옥 전시, 공예학교 운영 등 전통을 지켜가기 위한 방법
8.8.(토)	아그로돔 농장	○ 직업교육의 효과 비교 분석 ◦ 직업교육과 현장 접목 현황 ◦ 직업교육의 성과, 농가 소득,

방문 일자	방 문 지	주요 착안사항
		◦ 직업의 다양성(대학교와 직업교육의 인식)에 대한 지역민들의 의견 청취
8.9.(일) 8.10.(월)	블루마운틴 야생동물원	○ 자연 친화적인 환경교육 ◦ 자연, 동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교육 현장 ◦ 자연의 모습 그대로를 활용한 호연지기 교육의 장 견학
8.9.(일)	University of Western Sydney (UWS) http://www.uws.edu.au/	○ 대학시설 견학 ◦ 대학시설물 및 학교 환경 현황 ○ 한국인 대학생과 교육에 관한 대화
8.10.(월)	〈호주 - 시드니〉 EVANS HIGH SCHOOL http://www.evans-h.schools.nsw.edu.au/	○ 충남의 다문화 정책 및 프로그램과 비교 분석 ◦ 유학생 및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교육 시스템 현황 ◦ 다양한 직업 교육 및 멘토 시스템 ◦ 이민자 들을 위한 영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학생들의 현지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현황
8.11.(화)	〈호주 - 시드니〉 NSW 주 교육청 NSW Department of Education & Communities http://www.dec.nsw.gov.au/	○ 우리의 교육정책과 교육지원청의 역할 비교 분석 ◦ 호주 교육제도에 관한 현황 및 우수사례 (역점사업, 교육정책, 교육비전 등) ◦ 교육청에서 담당하는 업무 영역 및 운영 현황 ◦ 학교 규모별, 목적별 지원현황 ◦ 미 취학 아동 보육시설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실태 등
8.12.(수)	〈호주 - 시드니〉 사립학교 St. CHARBEL' s College 유치원~12학년 과정의 학교 http://www.stcharvel.nsw.edu.au/	○ 충남의 통합학교와 장·단점 비교 분석 ◦ 유·초 통합학교의 장, 단점 비교 ◦ 유·초 교육과정 운영 현황 ◦ 학교 시설 및 운영 시스템 현황 ◦ 통합학교로서의 학생지도 및 생활지도에 대한 현황 및 우수사례 ◦ 음악 및 체육 및 다양한 학교 프로그램

방문 일자	방 문 지	주요 착안사항
8.12.(수)	<호주 - 시드니> 이민자와 만남 이민자 : 충청향우회 이00, 정00, 김00 님과의 대화	○ 충청인의 이민자와 대화 ◦ 한국교육과 호주교육 장,단점 비교 ◦ 이민자가 느끼는 한국교육 ◦ 기타 교육과 관련된 토론
8.13.(화)	<호주 - 시드니> 도서관 State Library of New South Wales http://www.sl.nsw.gov.au/	○ 지역사회에서 도서관의 역할 및 제공되는 프로그램 비교 분석 ◦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시설 및 프로그램 현황 ◦ 도서관리 프로그램 및 편의시설 현황 ◦ 지역에서의 공공도서관의 역할

Ⅱ . 주요 출장내용



Ⅱ

주요 출장내용

1. 뉴질랜드(ANI 중학교 방문)

< 개요 및 현황 >

□ 방문학교 일반현황

- 기 관 명 : Auckland Normal Intermediate (ANI) - 중학교
- 주 소 : Poronui Street Mt Eden Auckland 1024
- 전화번호 : + 64 9 630 1109
- 홈페이지 : <http://ani.school.nz/#>

□ 주요브리핑 내용

- 오클랜드를 대표하는 4군데의 초등학교 Remuera Primary , Auckland Normal Intermediate, Epsom Girls Grammar School, Auddand Grammar School 4군데의 초등학교가 오클랜드의 1학군에 속한다.
- 우선 학급구성을 보면 총 24개반으로 이루어져 있고, 32명의 교사와 7명이 Part timer(과목별) 선생님이 근무한다.
- 2010년 이후 Bursary 대입 시험제도에서 NCEA로 바뀌었다. 바뀐 교육정책중 중요한 변화는 예를들어 한가지 사물에 대해 본인의 관심분야와 연관된 부분을 본인이 선택하여 교육을 받는 다는 것이다.
- 한반에 인원이 30명 안팎이며, 특이한 점은 각 클래스가 오픈형으로 되어있어, 클래스별 원활한 소통을 통해 더욱 창의적인 교육을 유도한다는 점이다.
- 현재 Local Student와 유학생 (타민족,소수민족)의 비율을 전체 675명의 학생수에 15%정도이다. 소수민족(비영어권)학생들을 위해 방과후 ESOL 클래스를 운영하여 비영어권 학생들이 원활히 클래스 참여를 할수 있도록 돕고 있다.

< 주요 질의답변 요지 >

○ 뉴질랜드의 특징적인 교육과정 하나를 든다면 ?

- ➡ 학생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음.

○ 이 학교의 특색교육과정이 있다면 ?

- ➡ 세계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많이 염두해 두고 있음, 아이들이 공부하는 주제를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최소 4가지 정도의 언어를 습득하도록 도와주고 있음.

○ 한국 교육과정과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가?

- ➡ 한국은 먼저 대학에 입학하는 것을 최 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음.
- ➡ 한국보다 대학 진학률은 떨어지나 삶의 목표를 행복한 삶의 영위에 두고 있음, 이곳은 시민으로서 응용, 적용하고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노력, 본인이 직접 주제를 선정하여 스스로 탐구하도록 도와주는 역할,

○ 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지도 방법이 있다면 ?

- ➡ 1반에 정원이 30명 정도로 한국과 달리 교과서 위주 수업이 아니고 개인 그룹 위주의 수업이므로, 특별히 부적응 학생들은 없음, 다만 뛰어난 학생들은 별도 그룹으로 운영하고 있음

○ 학교폭력과 예방법이 있다면 ?

- ➡ 이곳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음, 담임 - 주임 - 교감 - 학부모로 연계한 지도 감독 효과 있음.

< 주요 질의답변 요지 >

○ 학교시설물 관리 및 수선은 누가 하나 ?

- ☞ 학교시설관리 업무는 별도 2명 정도 고용해서 관리하고 있음.

학교자체에서 세운 건물은 학교에서 수선을 하고, 교육부에서 진 것은 교육부에서 수선을 해줌. 그러나 태풍이 없는 지역이라 학교에 커다란 수선은 거의 없음

○ 학생들에게 학교교육에 대해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공부에 소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데 ?

- ☞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음. 그러나 학생들의 학년이 높아질수록 공부도 그만큼 많이 해야함. 우수고등학교 입학에는 한국처럼 별도의 시험을 치러야 들어가고, 대학에서도 공부를 하지 않으면 졸업을 할 수 없음

○ 교무실이 별도로 없는 것 같은 데 ?

- ☞ 이곳은 교무실이 별도로 없고 직원들이 쉴 수 있고 간단한 업무를 볼수 있는 오픈된 공간이 있음, 별도의 필요성은 특별히 느끼지 못하고 있음.
- ☞ 교장실, 교감, 행정실의 별도 직무실은 있으나 매우 작음.

○ 역사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다양한 민족끼리의 융화 방법은 ?

- ☞ 이곳은 뉴질랜드 원주민인 마우리족 마을이 인접해 있음.
따라서 마우리족 춤을 가르치고 있고, 전통 언어도 함께 가르치고 있음
학교에서 춤은 필수과목으로 운영됨.
- ☞ 다문화 민족의 교육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음, 부족간의 충돌도 없음
제2외국어로 중국어도 하고 있고 학부모도 반기고 있음.

< 활동 사진 >



Auckland Normal 중학교 방문



어린이 창작 연극 발표대회 모습
(인근학교에서 학교시설 공동이용)



소규모 그룹으로 학생 스스로 작품 만들기



건물이 모두 나무로 제작,
1층으로 되어 있음



교직원들과 자유스러운 대화의 시간



유학온 학국학생들과 대화

2. 뉴질랜드(Lynmore 초등학교)

< 개요 및 현황 >

□ 방문학교 일반현황

- 기 관 명 : Lynmore Primary School
- 주 소 : Iles Road Lynmore Rotorua 3010 New Zealand
- 전화번호 : +64 7 345 9850
- 홈페이지 : <http://www.lynmore.school.nz/>

□ 주요브리핑 내용

- OECD 교육 지표 조사 결과에 의하면 뉴질랜드 교육 성취 수준은 세계 TOP 5로 수준 높은 교육 환경을 자랑하고 있다.
지나친 입시 위주, 주입식 교육 환경을 벗어나 융통성을 지닌 뉴질랜드의 수준 높은 교육 제도와 함께 다양한 스포츠, 음악, 미술 문화 활동 권장을 통해 학생들의 인격 소양과 자발적 흥미 유발에 중점을 두어 정신과 신체의 고른 발달을 추구한다.
- 뉴질랜드는 만5세에 초등학교(primary school)에 입학하고 11세에 중학교(intermediate school)에 진학하며, 13세부터 17세 까지 고등학교 생활을 하게 된다.
고등학교 9학년(13세), 10학년 학생들은 일반과정을, 11학년부터는 NCEA를 취득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며, 11학년은 LEVEL 1을, 12학년은 LEVEL2, 13학년은 LEVEL 3을 이수하여야 대학 진입이 가능하다.
- 우리학교는 총 660명의 학생 (Rotorua)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공립학교이다. Age5-Age11 까지 클래스에 총 40명의 교사와 Sports/Dance 교사 4명이 근무하고 있다.
- 일반 클래스와 예체능으로 구분된다. 예체능 클래스의 경우 학부모들이 Donation을 통해 클래스 운영 유지가 되고있다.
- 이 학교 역시 아이들에게 주입식 위주의 교육 보다는 창의적인 자기개발을 통해 자존감 개발을 유도하는 교육 정책이다.

< 주요 질의답변 요지 >

- 주로 스포츠, 댄스 위주로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다른 과목은 ?
 - ☞ 음악교실 등 별도의 음악선생이 가르치고 있으며, 비용은 전액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음
- 학생의 입학이 매우 자유스럽다는 데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은 없는지 ?
 - ☞ 만5세 입학하는데 생일날이 있는 해에 자율적으로 입학하고 있음.
주로 교과서 위주가 아니고 놀이위주의 수업이라 많은 어려움은 없으나 학생들에게 규칙 등을 매번 설명해야 하는 어려움은 있음.
- 한국과 같은 방과후 수업이 있는지 ?
 - ☞ 학교에서 수업시간 외에는 별도 운영하는 수업은 없음.
 - ☞ 다만 외부기관에서 들어와서 운영하는데,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음.
현직 교원이 수업하는 것은 없으며, 다만 시설만 이용하는 형태임,
- 학생들에 대한 사교육이 있는지 ?
 - ☞ 학교에서는 수업외에 특별한 교육은 시키지 않고 있으나, 일부 학부모들이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음. 특히 한국에서 온 학생들이 영어공부나 학교수업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교직원 업무경감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
 - ☞ 이곳은 매니저라고 해서 행정업무를 보는 사람을 별도로 채용하고 있음
교육청에서 정책적인 시달도 별로 없고 학교 교장선생님간 협의에 의해 많은 부분 이루어지고 있음.

< 주요 질의답변 요지 >

○ 이곳에는 급식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

- ☞ 학생들에 대한 개별적인 특성은 학부모들이 알고 있어 학생에게 맞는 적절한 식사는 학부모가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알레르기 예방등) 우유 등은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음,
- ☞ 다양한 인종들이 사는 다문화 국가이므로 다양한 식성을 고려하여 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음.

○ 학구가 지정되어 있는지, 통학버스는 있는지 ?

- ☞ 이곳에도 학구는 지정되어 있음, 우수한 학구로 지정받기 위해 이사도 하고 있음.
통학버스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어느정도 거리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걸어야 한다고 생각함.

○ 교사 채용 방법이 한국과 다르다는 데 ?

- ☞ 이곳에서의 교사채용은 학교에서 별도로 채용 공고하여 선발 함
- ☞ 면접을 통해 선발하며, 학교장과 학부모대표 등이 선출함.
- ☞ 일정기간 평가를 통해 교사의 채용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어 매우 열심히 하는 편이며,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계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음

○ 교사의 보수 및 정년은 ?

- ☞ 교사의 보수는 조금 높은 편임
- ☞ 이곳에는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정년이 특별이 없음, 노인분들을 우대하는 국민성 때문임.

< 활 동 사 진 >



Lynmore 초등학교 방문



학교교육제도 안내 및 질의 답변



교장실이 상당히 좁음



학생들의 수업을 참관하고 있음



학생들의 수업을 참관하고 있음



학교건물 모양(나무, 단층)

3. 호주(Western Sydney 대학 견학)

< 개요 및 현황 >

□ 방문학교 일반현황

- 기 관 명 : University of Western Sydney (UWS)
- 주 소 : James Ruse Drive, Parramatta NSW 2150
- 전화번호 : +61 2 9852 5222
- 홈페이지 : <http://www.uws.edu.au/>

□ 학교특징

-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스(New South Wales) 주 시드니에 있는 공립 종합대학교로, 1850년 개교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또 오스트레일리아 최고 명문 대학으로 구성된 그룹 오브 에이트(Go8, Group of Eight)에 속해 있다.
- 시드니 대학교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명문 학교답게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차지하는 위상도 높다. 2011년 영국 대학평가기관 QS(Quacquarelli Symonds)가 매긴 QS세계대학랭킹(QS World University Rankings)에 따르면 이 학교는 오스트레일리아 3위, 세계 38위에 올라 있다.
- 시드니 대학교는 1850년 시드니 주의 법령을 기반으로 학교 법인이 설립되어, 1852년 첫 수업을 시작했다. 1858년 영국 빅토리아 여왕(Queen Victoria, 1819~1901)으로부터 왕실 칙허장(Royal charter)을 받으면서 대학의 학위가 영국 대학 학위와 같은 것으로 인정 받았다. 1960년대 시드니 대학교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마르크스주의(Marxism)와 페미니즘 연구의 중심지로 부상하기도 했다. 1990년대에는 시드니 음악대학(Sydney Conservatorium of Music), 컴벌랜드 보건과학대학(Cumberland College of Health Sciences) 등 6개 학교를 합병했다.
- 시드니 대학교는 농업·식품·자연자원학부, 건축·디자인학부, 예술·사회과학부, 경영학부, 치의학부, 교육·사회사업학부, 공학·정보기술학부, 보건학부, 법학부, 의학부, 간호학부, 약학부, 과학부, 수의학부, 예술대학, 음악대학(Sydney Conservatorium of Music) 등 모두 16개 학부로 구성되어 있고, 니콜슨 박물관(Nicholson Museum), 매클레이 박물관(Macleay Museum), 미술관, 피셔 도서관(Fisher Library) 등의 부속 기관을 운영한다.

< 한인 대학생과 대화 >

○ 한국에서 언제 왔는지 ?

☞ 고등학교 1학년까지 다녔음.

○ 한국과 호주 교육의 가장 큰 차이점은 ?

☞ 한국교육은 개인의 특성을 무시한 입시위주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음.

학생들간의 경쟁심도 매우 커서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매우 심함

좋은 직업을 얻어야 한다는(화이트칼라) 강박관념이 있음

☞ 반면 호주는 대학입시에 대한 부담감이 별로 없음. 고등학교 2년에 대학,

직업교육 등을 선택하지만 그 후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진학할 수 있음

이곳은 기술직이 우대받고 있으므로 구직 대학을 가려 하지는 않음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기 적성에 맞는 방향을 찾도록 도와주고 있음

○ 한국과 호주의 가장 큰 정책의 차이점이 있다면 ?

☞ 한국에서 최근에 안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어 매우 좋음.

☞ 한국은 ‘설마’ 문화가 많이 있어 안전불감증 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호주와서 느낀 것은 이곳은 ‘혹시’ 문화가 있어 안전 및 각종 정책에
반영되고 있음.

☞ 또한 흔히 말하는 백호주의가 있다고 하는데 이곳은 자국민을 위한
각종 정책이 지나칠 정도로 강함.

☞ 한국에서는 좋은 것은 수출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데 이곳에서는 가장
좋은 것은 자국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한인 대학생과 대화 >

- ☞ 한국에서는 ‘손님이 왕’이라는 말이 있음, 호주에서는 사장이 왕이 아니고 그 일을 하는 ‘종업원이 왕이다’ 라는 말이 있음.

그만큼 직업에 귀천이 없고, 인건비가 비싸서 몸을 움직이는 직업이 우대를 받는 사회임,(광부 초봉이 가장 높음, 은행원이 가장 낮음)

- ☞ 한국사회는 hardware는 잘되어 있으나 이를 운용하는 Software는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 됨. 호주는 한국과 정반대라고 생각됨

- 시스템에 변화가 떨어져 대학입시제도가 자주 바뀜,
- 학생들이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모르고 공부하고 있음.
- 대학 들어와서는 학문의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떨어지고 있음.

○ 호주 교육제도의 장점이라면 ?

- ☞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학교에서 이를 어느 정도 보장해 줌

○ 만약 내가 대한민국의 교육부장관 이라면 어떤 것을 가장 먼저 하고 싶은가 ?

- ☞ 가장먼저 한국의 사교육을 없애고 싶음

※ 본 대화내용은 호주 유학생의 개인적인 생각을 다른 것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람.

< 활동 사진 >



Western Sydney 대학 견학



한인 대학생과 대화의 시간



한인 대학생과 대화의 시간



한인 대학생과 대화의 시간



한인 대학생과 대화의 시간



한인 대학생과 대화의 시간

4. 호주(Evans 고등학교 방문)

< 개요 및 현황 >

□ 방문학교 일반현황

- 기 관 명 : EVANS HIGH SCHOOL
- 주 소 : 166 Walters Rd Blacktown NSW 2148
- 전화번호 : +61 2 9621 3622
- 홈페이지 : <http://www.evans-h.schools.nsw.edu.au/>
- 교직원수 : 교직원수: 약 127명 (교장 1명, 교감 3명, 헤드 Teacher 11명, 학급교사 76명, 영어ESL 3명, 기타)

□ 주요브리핑 내용

- NSW주 블랙타운에 위치한 다문화 남녀 공학 학교로 우리학교는 지역사회 안의 다양한 문화를 가진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주고자 함
- 학생수: 729명(2014년 현재, 남학생: 56% 여학생: 44%)으로 Evans Intensive English Centre 169명, Autism Unit (자폐아) 22명, Aboriginal students (원주민) 21명, 비영어권 학생 전체 학생의 65% (다문화 학생 58개의 언어 사용) 비영어권의 이민자와 유학생을 위한 영어교육이 활성화 된 고등학교임.
- BEACON 재단에 소속된 학교(BEACON에는 110여 개의 Secondary school 이 소속되어 있음)
- 유학생, 이민자, 난민, 임시비자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기 위한 집중영어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어집중프로그램 운영, 문화적으로 낯선 호주학교 시스템 적응, 정착에 따른 교육적 요구사항 등을 가르치는 기능을 함. 평가를 통해 최대 50주(5학기)까지 머물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약 20주를 운영하고 있음.

< 주요 질의답변 요지 >

○ 이 학교의 특징이 있다면 ?

- ☞ 이 학교는 만 6세 ~ 17세 의무교육으로 13년을 가르치며, 남녀공학임.
- ☞ 영어집중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유학생을 대상으로 최대 50주(5학기)를 운영하고 있음.

○ 이 학교의 교육목표가 있다면 ?

- ☞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상상력이다”, “틀리다가 아니라 다르다”를 강조하고 있으며, 교사의 제 1대 행동강령은 “절대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한국의 사도헌장) 임
- ☞ 학생들의 자율적 상상력, 다문화 학생들의 융화, 학생들의 자율적 발표력 등을 길러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대학 진학률과 직업학교 비율은 어느 정도 ?

- ☞ 작년에는 약 50:50 정도였으며, 보통 11학년에 결정함.
대학 미진학 학생들은 기술전문대를 가거나 직장에서 경험을 쌓음
차후 대학 진학에도 다양한 선택의 기회가 많음
호주는 기술을 가진분을 우대하기 때문에 구직 대학을 목표로 하진 않음
- ☞ 대학에 가는 학생들도 본인이 학자금을 융자받아 다니고 차후 본인이 갚아야 함(부모님이 내 주지는 않음), 대학 졸업도 들어가기는 쉬워도 졸업하기에는 상당이 어려움

○ 결석이나 학력저하 학생들에 대한 지도 방법이 있다면 ?

- ☞ 년 40주 정도 운영하고 있으며, 결석이 많은 학생이나,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은 유급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차후 고등학교 졸업장을 수여하고 있지 않음.

< 주요 질의답변 요지 >

○ 이곳도 교복을 입고 있는데, 특징적으로 가방도 학생들이 똑 같은 이유 ?

- ☞ 공립학교는 대부분 교육을 착용하고 있음. 경제적 차별을 없애기 위한 방편이며, 아울러 학생들에게 학교의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한 것임. 또 한가지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시행하고 있음.
- ☞ 가방을 동일하게 하는 것도 위의 이유와 같다고 보면 됨.

○ 남·녀 공학인데 학생들 사이 문제점은 없는지 ?

- ☞ 학생들끼리 잘 어울리고 특별한 문제점은 그동안 없었음. 나름대로 성교육을 잘 시행하고 있음.

○ 교사가 학생들에 대한 폭언, 폭력이 있는지, 있다면 그에 대한 조치는 ?

- ☞ 선생님은 행동강령을 엄격히 지켜야 함.
학생들에게 폭언, 폭력은 있을 수 없음
- ☞ 선생님이 규칙을 어겼을 경우 경미한 것은 학교자체 처리하고, 심한 것은 교육부에서 처리하며, 매우 엄격한 편임

○ 학교를 들어오는데 마치 요세에 들어오는 것 같았는데 그 이유는 ?

- ☞ 학교는 학생들의 안전을 최 우선으로 해야 함. 따라서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하게 차단해야 함. 어떠한 사람도 학교의 허가없이 들어올 수 없음 반드시 방문 목적을 말하고, 허가를 득한후 들어 올 수 있음.

< 활 동 사 진 >



Evans 고등학교 방문



학교교육제도 안내 및 질의 답변



학교교육제도 안내 및 질의 답변



한국 교육에 대한 심도있는 대화



한국 교육에 대한 심도있는 대화



학교내 철저한 출입 통제

5. 호주(NSW 교육청 방문)

< 개요 및 현황 >

□ 방문학교 일반현황

- 기 관 명 : Education & Communities - NSW 교육청
- 주 소 : 35 Bridge Street Sydney NSW 2000
- 전화번호 : +61 2 9561 8000
- 홈페이지 : <http://www.dec.nsw.gov.au/>

□ 주요브리핑 내용

- 뉴 사우스웨일즈 주(NSW)의 교육 시스템의 관리,국가 정책의 수행등 교육에 관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기관이다 .유아교육과 고등교육 정책에서, 비 정부 학교 정책 까지 다양한 분야의 교육정책을 연구하며 시행 한다.
- NSW 교육청은 호주 내 가장 방대한 정부 부서로 2015~2016년 재정 예산 1억2천8백만 달러에 의해 운용 되고 있으며 주정부 예산의 4분의 1을 사용 하는 거대한 주정부 부서로 약 10만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 연방정부 재정지원에 의해 NSW 정부산하 공립학교 재정 지원하며 공립학교를 제외한 사립학교도 연방정부및 NSW 주정부의 예산중 공공 예산에 편성된 자금중 많은 양을 할당 지원 받고 있다.
- NSW 교육청은 4개 부서로 구성 1. 학교 운용및 수행부서 2. 대외업무 및 규정 부서 3. 기획및 혁신부서, 4. 협력지원부서로 구성되어있다.
- NSW 주정부에서 각 학교별 개발 규정, 모니터링, 심리등 지속적인 업무지원을 하고 있으며 영연방의 재정지원에 의한 아동 교육, 학교 교육, 직업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 주요 질의답변 요지 >

○ 학교폭력, 왕따 문제에 대한 교육부 정책은 ?

- ➡ 이곳은 다문화 국가이므로, 한국처럼 심하지는 않으나 존재하고 있음
이곳에는 학교담당 경찰관이 따로 있으며, 심각할 경우 경찰에서 처리
분기별로 학교, 학부모, 경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하여 예방
- ➡ 이곳의 사회적 분위기는 왕따를 시키는 학생이 왕따가 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 심한편은 아님.

○ 유아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는 지 ?

- ➡ 유치원 과정은 학교 배우기 전 1년전에 지정된 학교에서 하고 있음
이로 인해 초등학교가 7년이 되는 것임,
- ➡ 공립학교는 전액 무료이며, 사립유치원은 개인부담, 지원 각 50% 임

○ 학교에서의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돌봄 기능이 있는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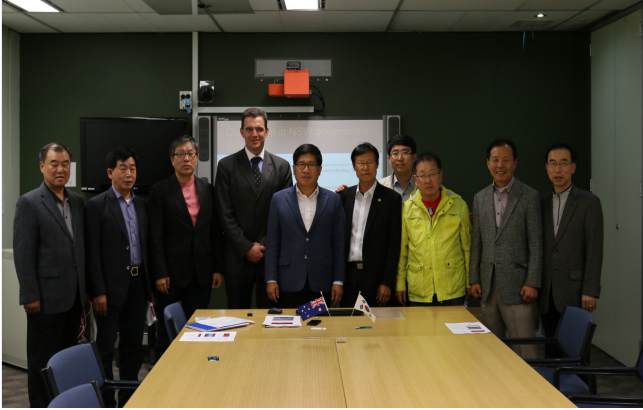
- ➡ 유치원은 6시까지만 운영하고 그 이후에는 학부모들이 책임져야 함.
- ➡ 학교에서도 선생님 퇴근전 6시까지만 운영하고 그후에는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사설 놀이반에 맡겨야하며, 일부 정부지원도 있음.

○ 특수학생에 대한 교육방법은 ?

- ➡ 심한경우에는 별도의 시설을(특수학교) 갖추고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정도가 심하지 않은 학생들은 일반학생들과 같이 수업하고 생활하고
있음.

또한 통신(원격)교육이 활성화 되어 있어 가정에서 돌보는 학생들은
1년에 4번 담당교사가 직접 방문하여 지도하고 있으며,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음.

< 활동 사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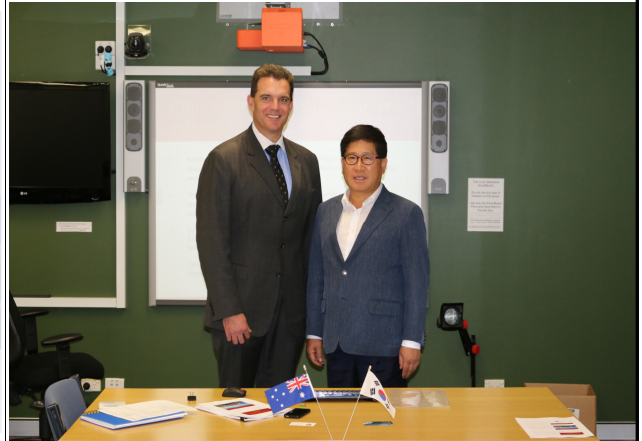
NSW 교육청 방문



교육청의 역할 및 정책에 대한 설명 청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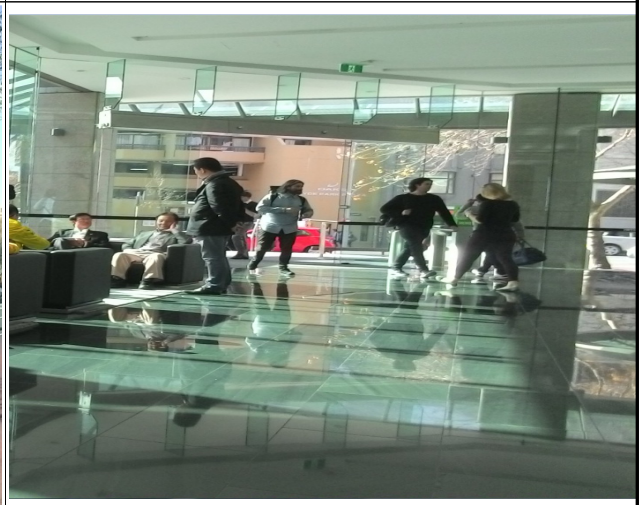
교육청의 역할 및 정책에 대한 설명 청취



교육청의 역할 및 정책에 대한 설명 청취



건물을 임대해서 교육청으로 활용



교육청 내부 전경

6. 호주(St. Charbels 사립학교 방문)

< 개요 및 현황 >

□ 방문학교 일반현황

- 기 관 명 : St. Charbels College
- 주 소 : 142 Highclere Avenue Punchbowl, NSW, 2196
- 전화번호 : +61 2 9740 0999
- 홈페이지 : <http://www.stcharvel.nsw.edu.au/>

□ 주요브리핑 내용

- 학년은 K -YEAR 6 유치원 및 초등학교 과정과 YEAR 7 - YEAR 12 중 고교 과정이며, 직원은 총 117명 (교사: 90명), 학생수는 초등학교 589명 고등학교 520명 이며, 특히나 중동, 그리스, 말레이시아 계 학생들이 많음.
- 1984년 로마 카톨릭교회의 한 종파로 동방 의식을 채용하는 마론 종파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우리나라의 유치원 격인 Kindergarten 학년으로부터 12학년까지 초 중 고교의 모든 과정을 한 곳에 설립한 카톨릭 사립학교 임.
- 비영어권자 대상 ESL(영어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학교 수업에 적응토록 영어 학습 지원
- 학생들 교육의 목표는 원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그 분야에 최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양한 통합학교 형태로 상호 보완적 기능을 가지고 있어 학생들 교육에 도움이 됨.

< 주요 질의답변 요지 >

○ 학생수가 1,000명 정도인데 비해 도서관이 작다는 생각이 드는데 ?

☞ 책은 도서관과 학급에 비치하고 있음. 도서보다는 주로 인터넷을 활용한 교육 등이 잘 되어 있어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됨.

또한 이곳은 지역도서관이 활성화 되어 있어 학생들이 지역도서관을 많이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 학생 1인당 책을 얼마나 읽도록 권장하고 있는지, 학생지도는 어떻게 ?

☞ 가능한 많은 책을 읽도록 하고 있으나 월 5권 정도를 권장하고 있음.

☞ 개인별 취향, 대출 성과 등은 별도 관리하고 있지는 않음. 자율적으로 도서를 선정해서 읽고 있는 편임. 일다보면 다양한 방향으로 나아감.

○ 학생들이 가방을 가지고 다는 것 같은데 ?

☞ 학생들의 책은 개인 사물함에 보관하고 있음.

다만 본인 체육복과 도시락을 본인들이 가지고 다님.

☞ 이곳은 수업에 따라 학생들이 교실을 찾아다니고 있음,

○ 학생들의 수업형태는 ?

☞ 이곳은 교과교실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자칠판, 컴퓨터 등을 활용한 교육을 많이 쓰고 있음.

실제 생활에 필요한 인터넷 검색법, 특정한 사이트에 들어가 직접 자료를 찾아보고, 경험해 보는 교육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

< 활동 사진 >



St. Charbels 학교 방문



학교 출입구 모습(외부인 통제)



학교 견학 및 설명



도서관 내부 전경(컴퓨터 사용대)



수업하는 모습
(전자칠판, 컴퓨터를 활용한 교육)



가방이 모두 동일함

9. 호주(NSW 주립 도서관 방문)

< 개요 및 현황 >

□ 방문기관 일반현황

- 기 관 명 : City of Sydney Library at Custom House - 시드니 시립도서관
- 주 소 : 31 Alfred Street Circular Quay NSW, Australia
- 전화번호 : +61 2 9242 8555
- 홈페이지 : <http://www.cityofsydney.nsw.gov.au/>

□ 주요브리핑 내용

- 이 도서관은 1826년 'Australian Subscription Library (호주 구독 도서관)' 라는 이름으로 개관하였다. 1869년 NSW 주 정부가 매입하면서 이름을 'Sydney Free Public Library (시드니 무료 공공 도서관)'로 개명하였으며 1895년에는 'Public Library of NSW (뉴사우스웨일즈 공공도서관)'으로 개명하였고 1975년에 이르러서야 현재의 이름인 'State Library of New South Wales'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다.
- 뉴사우스웨일스 주립 도서관(State Library of New South Wales)은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의 맥쿼리 스트리트의 웨익스피어 광장 근처에 위치한 뉴사우스웨일스 주(이하 NSW) 정부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다. 이 도서관은 2개의 건물로 나뉘어 있는데 정면에서 보았을 때 좌측(오페라 하우스 방향)에 위치한 과거 유럽 양식의 건축물은 미첼 도서관(Michell Library), 우측(하이드 파크 방향)에 위치한 현대식 건물은 딕슨 도서관 (혹은 주 참고도서관 State Reference Library)이라고 불리는데 통로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있다.
- 미첼 도서관에는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호주와 태평양 지역연구 자료, 특히 뉴사우스웨일즈 주에 대한 각종 자료들이 풍부하며 주 참고 도서관에는 다양한 주제에 관한 책, 잡지, 보고서, 통계 자료 등이 보관되어 있다.

< 주요 질의답변 요지 >

○ 도서관 이용에 대한 제한 또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있는지 ?

- ☞ 도서관에 대한 제한 조건은 없음.
- ☞ 기본적으로 와이파이, 전기콘센트, 인터넷 연결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사진복사, 종이복사 등은 약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함.

○ 이 도서관의 주요 역할은 무엇인가 ?

- ☞ 기본적인 도서관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음.
- ☞ 그러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역사적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목적임.
정부, 산업체, 개인가족사, 호주 아시아 역사자료, 고문서 관리, 학생들 공부에 도움이 되는 자료 등을 지하에 별도로 보관하고 있음
다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별도의 보관장소에서 보관하고 있음.
- ☞ 또한 중요한 기능 하나는 전시장, 박물관, 휴식공간을 확보하여 제공하며 전시장은 신청을 하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다른 곳과 차별화된 도서관 기능이 있다면 ?

- ☞ Ask Here Desk 와 Ask Librarian Desk 기능이라고 할 수 있음.
- ☞ 도서관에 와서 일괄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창구기능으로 도서관에서 원하는 것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어떻게 구해야 하는 지를 일괄적으로 질문하면서 협의하여 자료를 제공해 주는 일괄 시스템 이라고 할 수 있음.

○ 평생교육은 하고 있지 않나 ?

- ☞ 평생교육은 전문기관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서는 하고 있지 않음

< 활동 사진 >



NSW 주립 도서관 방문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와이파이, 인터넷,
전원을 무료 제공



천장을 유리로 만들어 조명시설이 없음



세계에서 가장 큰 책



셰익스피어 관 운영



기존 건물을 유지하면서 과거와 현재가 공존

Ⅲ. 기타활동



Ⅲ

기타활동

1. 충청향우인과의 만남



충청향우회 이00, 정00, 김00 님과의 대화



한국의 교육과 호주 교육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

2. 충남교육청과 업무협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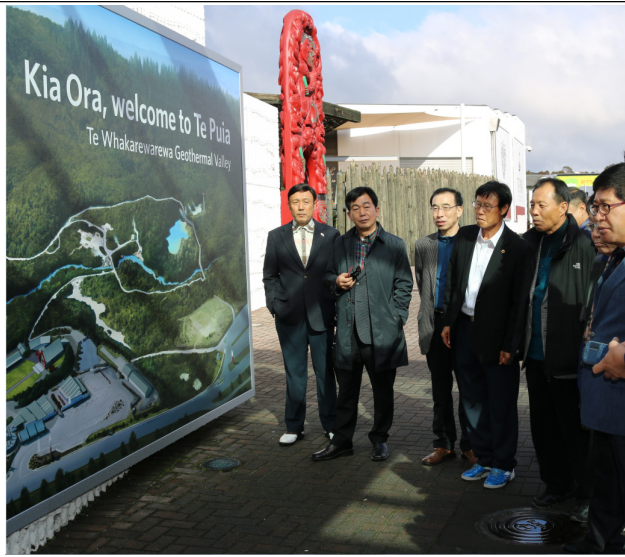


충남교육청과의 업무협약



조례, 현안사업에 대한 설명 및 대화

3. 탐방(견학)



○ 테푸이아 마오리 민속마을 탐방

-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사업 개발
-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이 엿보임.



○ 아그로돔 농장 견학

- 목장경영을 관광상품화 해 개발
- 농업을 통한 소득증대, 직업교육과 연계한 현장 실습



○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탐방

- 아름다운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개발을 최소화 하면서 관광산업으로 육성
- 학생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자연교육의 현장



○ 호주 야생동물원 탐방

- 호주의 야생동물을 모아 놓고 직접 접촉해 볼 수 있는 기회 제공
- 학생들에게 자연 친화적인 교육의 장

IV. 우수사례



IV

벤치마킹에 필요한 우수사례

1. 학생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교육 방향 모색

○ 우리나라는 입시위주의 교육정책으로 인해 학생들의 스트레스는 매우 심각한 상태임,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정책이 필요

○ 방문지 교육정책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놀이위주의 교육을 주로 실시하고 있었음.
- 사회적 분위기가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로, 대학을 구지 갈려고 하지 않아 입시위주의 부담에서 벗어나고 있음.
- 교과서도 최소한으로 활용하고 교사의 프린트 물을 이용한 교육이 눈에 띄었음.
- 학생들에게 주입식 교육보다는 스스로 주제를 주고, 찾아보고, 결론을 내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교사의 역할을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었음.
- 우리가 만난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은 한결 같이 한국에서의 학교생활이 매우 어려웠음을 호소했고, 류질랜드나 호주로 유학 오고서는 학교생활이 즐거웠다고 했음.

2. 도서관의 역할 증대 필요

○ 우리나라 도서관은 도서대여, 평생교육, 컴퓨터 이용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음

○ 도서관 이용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성이 필요

○ 방문지 도서관 기능

- 방문자에게 와이파이, 컴퓨터 전원, 인터넷 연결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개인 컴퓨터를 들고와 검색, 작업 등을 하고 있음.

- 방문자의 편의를 위하여 완스톱 해결방법을 제공하고 있음
 . 방문자가 찾는 자료, 찾는 방법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서포트 함.
- 건물을 새롭게 신축하면서 먼저 건물을 보존하고 새롭게 건물을 신축하면서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특징적임

3. 교직원 업무 경감을 위한 방법 모색

- 교직원 업무경감을 위해 매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느끼는 점은 매우 미약함.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개선안이 필요함.

○ 방문지 교직원 업무경감

- 교사를 임용고사에 의해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모집공고를 내어 학교장, 학부모 대표회에서 선발함
- 교육부에서 특정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지시하는 것을 최소화 하고 인근 학교장의 모임에서 교육정책, 교육방향의 많은 부분을 결정하고, 학교장에게 대폭적인 권한을 위임하고 있음.
- 또한, 행정업무 수행은 학교장과 행정전담 직원을 별도로 채용하여 활용하고 있어, 교직원의 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임.

4. 학생안전을 위한 방법 모색

-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고,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

○ 방문지 학생안전 정책

- 뉴질랜드는 출입자의 통제는 없었음.
- 호주는 외부인 출입 통제가 매우 엄격했음. 학교 주변에 철제 울타리를 약 2m정도 높게 쳐져 있고, 출입시 전자시스템을 통해 출입허가를 받아야 했으며, 학교안에서 건물로 들어갈 때

도 별도 허가를 받아야 했음

- 차량은 학교내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어 있으며, 학교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어 교직원이 사용하게 하고 있어, 학교내 안전사고 예방을 하고 있음.

5.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생각 고취

○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고취시키기 위한 교사들의 노력 필요

○ 방문지 학생교육

- 학생들의 발표력 향상, 긍정적인 생각 고취를 위하여 교원들의 제1원칙이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라” 임
- 교사들은 학생들이 잘못된 대답을 해도 절대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으며, 다른 학생들에게 기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 좋은 생각이라고 칭찬을 먼저한다.
- 전체적인 토론 영역을 주고, 학생 스스로 주제를 주고, 스스로 찾아 발표하는 시간을 자주 갖음으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 능력을 길러준다.
- 그룹별로 토론, 제작, 음식 등을 할 수 있고, 상호 토론 시간을 갖음으로서 협동심 갖도록 하고 있음.

6. 다문화 학생들의 수용

○ 다문화 학생들이 많으므로 학생들 스스로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인식이 중요

○ 방문지 다문화 교육정책

- 학생들의 간의 다양한 민족을 학생들 스스로 수용하면서도,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고 있음.
- “다름”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는 사회적 풍토가 매우 중요

V.出張을 마치고



많은 것을 느끼게 한 시간 ...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홍 성 현

8박 10일의 뉴질랜드, 호주 일정을 받아 드는 순간 어떠한 관점에서 보고 와야 되는 부담감이 먼저 앞섰다.

낮선 나라에서의 글, 문화, 음식등에 대한 환경적 부담감 그리고 도의회 교육위원회를 이끌어 가야 하는 위원장으로써 우리 교육위원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가야 하는 심적 부담감, 더욱이 교육위원이 일몰되면서 처음으로 일반 의원님들이 교육위원회에 오셨기 때문에 더욱 알찬 연수가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더욱 나를 압박해 왔다.

아무튼 심적부담을 안고 한여름의 찜통더위를 뒤로 한채 8월 5일 2시에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짐을 붙이고 입국은 순조롭게 빨리 진행되어 16:50분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장장 11시간이나 가야하는 것으로 의원님들의 피로도에는 극에 달했다.

8월6일 아침 07:10분에 뉴질랜드의 오클랜드에 도착하였으나, 이곳의 입국 허가는 매우 까다로웠다. 특히나 농산물, 담배 등에 대한 검역은 매우 심하였다.

뉴질랜드에는 한국인이 약 40,000여명이 있다고 했으며, 최근에는 중국인들의 유입이 빠르게 증가하여, 부동산 거품과 차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한국인들의 생활이 많은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는 쉬는 시간 없이 바로 ANI중학교를 방문하였다. 아침 일찍이라 그런지 부모들의 손을 잡고 등교하는 모습, 학생들이 직접 교통지도를 하고 있는 모습은 별로 낯설지 않은 풍경이었다. 학교건물은 모두 나무로 만들어져 있고 단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립식 형태의 건물도 종종 눈에 띄어 우리나라와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었으나,

태풍이 없어 건물파손이 없다는 설명을 듣고는 어느 정도 이해는 되었다. 여기서 참 복 받은 땅이구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다.

이곳의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선택과목을 선정하고 학생들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목적이며, 읽기, 쓰기 정도만 담임교사가 가르친다고 한다. 특이한 것은 초등학생들이 구구단이나 읽기, 쓰기를 못하는 학생들도 많은데 그에 대해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먼저 학생들에게 흥미를 유발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쉬는 시간에는 모든 학생들이 나와 자유스럽게 체육활동, 간식을 먹는 학생들의 모습이 무척 자유스러워 보였으며, 교사들은 쉬는 시간에 모여 간단한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고, 우리도 초대되어 간식을 같이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곳의 교사들은 외부인에 대한 거부감 없이 즐겁게 농담하며 받아 주는 모습이 어떤 여유가 보였다.

다음날 Lynmore Primary 초등학교를 방문하였다. 이곳도 전일과 같이 학교 건물에 대한 검소함이 배어 있었으며, 역시나 나무로 이루어진 단출한 학교였으나, 이곳의 학구가 우수한 지역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뉴질랜드의 교육정책에 특이한 사항은 학교에서 방과후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원의 연구시간 확보 및 학생들의 자율적인 활동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하며, 특히나 체육활동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도 특이한 사항이다. 또한 교원의 선발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선발한다는 것도 특징이 있으며, 상당이 보수적인 성향이 있어서 그런지 정년이 없고 경험이나 경력 등을 우대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한다.

8월 9일 아침 뉴질랜드의 오클랜드를 출발하여 호주로 출발하였으며, 약 3시간이 소요되었다. 특이한 것은 호주의 입국절차는 매우 까다롭고 시간도 많이 걸렸다. 일요일이라 그런지 몰라도 호주의 입국

시 약 1시간 30분이 소요되고, 줄이 그렇게 긴대도 마냥 기다리게 하는 것이 참 답답했다. 다행이 우리 일행의 일부는 한국에서 전자여권을 등록하여 별도로 전자여권으로 들어와 약 10분정도 소요되었다. 앞으로 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전자여권을 가지고 공항에서 등록해서 가는 것도 하나의 팁이 아닌가 생각된다.

바로 Western Sydney 대학을 방문하고 그곳에서 한국인 유학생과 만나 호주의 교육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었다. 고등학교 1학년까지 다니다 호주에 유학을 왔다고 하며, 한국의 교육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다. 입시위주의 교육정책, 학생들의 공부 스트레스, 주입식 교육 등 한국의 교육정책과 비교 호주의 교육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갖아 좋은 시간을 되었다.

다음날 Evans 고등학교를 방문하였다. 이 학교에서 뜻밖에 한국에서 유학온 학생 4명을 만났으며, 한국에서 이민온 직원까지 만나 매우 반가운 마음이었으며, 즐거운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 학교는 유학온 학생들의 사전 어학연수 기능까지 맡고 있어 한국 학생들이 자주 들르는 곳이라고 했다. 한가지 씁쓸한 것은 한국에서 유학온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한국의 교육정책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꺼린다는 것이 매우 씁쓸한 마음이 들었다.

다음날은 NSW 교육청을 방문하였다. 특이한 것은 독립 건물이 아니고 총 20층 건물에 8개 층을 얻어 교육청으로 쓰고 있다는 것이며, 이곳은 우리나라 도교육청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하였다.

교육부 주관의 다양한 교육정책을 질문하고 정보를 얻었으나 한가지 특이한 것은 교육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등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학교 자율에 상당부분 맡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날 저녁 충청향우인과의 만남을 가졌다. 이곳에서 와서 부여, 서천, 아산 분들을 만나니 매우 반가웠으며, 고국에 대한 진한 향기를 느낄 수 있었다. 한국의 교육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구동성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어느 정도 이해도 하

는 부분이 있어 역시 연륜은 무시할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날 NSW 주립 도서관을 방문했는데 이곳은 200년이라는 짧은 역사속에서도 나름 역사를 소중하게 아끼려는 정신을 엿볼수 있었으며 특히 감명받은 것은 건물을 계속 증축하면서도 과거 건물을 소중하게 보관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왕실의 영향을 받아 디자인이나 소장품에 대한 자부심도 매우 컸다. 또한 이용자들을 위한 자료관리, 편의성 등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었다.

우리는 8월 14일 07:45분에 시드니를 출발하여 17:20분에 한국에 도착했는데 추운곳에 있다 처음 공항에 도착하지 숨이 탁 막혔다. 입국 심사를 하는데 역시 우리나라 입국시스템은 세계에 자랑할 만하다는 생각을 가졌다. 단 10분만에 모든 것이 처리되는 것을 보고 역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연수를 다니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만난사람 모두가 한국의 교육에 대한 심한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좁은 땅에서 먹고살기 힘든 상황에서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말도 있지만 과연 그것만이 문제인가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서 학생들의 다양한 인성교육, 창의교육, 토론식교육 등을 도입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면이 매우 많다.

금번 공무외 국외 출장은 우리 교육위원회 의원님들이 앞으로 충남교육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나 역시 많은 것을 느끼고 반성하고 왔다.

마지막으로 금번 연수에 수고한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많은 협조와 성실한 업무수행을 하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우리의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맹 정 호 의원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공무국외해외연수를 뉴질랜드와 호주로 다녀왔다. 대한민국과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낯설고 먼 나라를 방문한다는 생각에, 교육위원회 의원의 신분을 떠나 여행자의 입장에서 기대가 컸습니다.

특히 뉴질랜드와 호주는 국민의 삶의 질 수준이 높고, 행복만족도가 세계에서 몇째 가지 않는 나라이며, 많은 우리의 학부모와 학생들이 유학과 이민 대상국으로 선호하는 나라이다 보니, 그 기대가 더 컸는 지도 모른다.

여행을 다녀온 지금 이 두 나라에 대한 나의 기억은 무엇일까? 사실 뉴질랜드와 호주의 역사는, 원주민들의 4천년 역사를 제외하면(물론 원주민들이 들으면 서운하겠지만), 200년이 조금 넘는 역사를 갖고 있다.

5천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고대와 중세의 역사유적이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 있는 유럽과 아시아의 역사, 그리고 그 관광지를 생각한다면 뉴질랜드와 호주 여행에서 기억에 남는 것은 끝없는 초지와 호주의 상징인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 정도이다.

초지와 오페라 하우스만 생각이 난다고 해서, 이 여행에서 나는 얻은 것은 없는 것일까? 물론 그렇지 않다. 어쩌면 다른 기억과 충격들이 있기 때문에 초지와 오페라 하우스가 그냥저냥 시시한 기억으로 남는 지도 모른다.

뉴질랜드와 호주의 교육제도는 나에게 큰 충격이었다. 우리나라와 이

두 나라의 교육제도에 대한 비교는 이 글에서 굳이 언급하지 않는다. 수많은 연구자료가 있고, 교육열이 높은 우리 국민 대다수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선진국을 여행하는 관광객의 한 사람이 아닌, 충남교육에 일정 부분 역할과 책임이 있는 한 사람으로 볼 때, 이 두 나라의 교육제도에 대한 부러움보다 참담한 대한민국의 현실이 나를 슬프게 했다.

이번 여행에서 우리 일행은 많은 교육기관(학교와 교육청, 도서관)을 방문했다. 자유롭고 창의적인 교실과 수업과정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학교와 교실에서 만난 학생들의 표정에서, 나는 지금 대학생인 아들과 중학생인 딸아이의 얼굴에서 보지 못한 얼굴들을 보며 미안하고 또 미안했다.

학교폭력, 시험에 대한 중압감, 왕따, 과외, 방과후 수업 등 우리가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교육자, 이들은 이 질문에 대해 고민을 한 적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고민할 필요가 없었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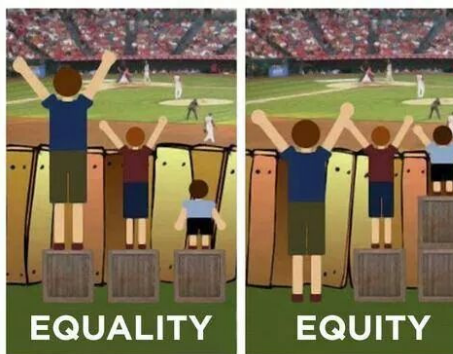
많은 학생들을 만났다. 뉴질랜드와 호주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과 어학생연수생들이 있다. 물론 우리나라 학생들도 많다. 나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표정에 주목했다. 이들은 세계의 친구들과 잘 어울렸고, 웃음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다. 질문이 있었고, 생각이 있었고, 배려가 있었다. “행복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무엇이 이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을까? 교육제도가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도 있구나?

대한민국의 교육제도는 바뀌어야 한다. 이 지점에서 나는 힘이 쭉 빠진다.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제도들은 참 좋은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림의 떡이야” 하는 동행한 의원의 탄식은 단지 그 의원만의 탄식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탄식이다.

교육은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한 사회나 국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교육은 혼자 떼어내어 생각할 수는 없다. 그래서 답답하다. 국가 시스템은 여러 분야가 톱니바퀴처럼 얹히고 설켜서, 서로가 대립하기도 하고, 서로가 의지하면서 돌아간다.

성적으로 줄세우는, 패자부활전이 없는, 돈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이 대한민국의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교육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위의 그림을 소개한다. 호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휴게실에 걸려 있는 그림이다.

‘공정함이란 모두가 똑같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얻는 것이다.(호주 EVANS HIGH SCHOOL)’

학생들과 함께 찍은 사진의 배경에 있는 그림에 쓰여진 글이다. 그림과 글이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방향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겠지만, 전에는 ‘교육이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크게 하는 것이’ 이었는데, 지금 우리는 이 교육 목표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고 있는가?

대한민국이 아무리 중앙집권적이고, 지방의 권한과 역할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방자치나 교육자치를 하고 있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충남교육청이 지향하고 있는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은 뉴질랜드와 호주 교육을 부러워하는 우리들이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참으로 많은 생각을 갖게 한 연수였다.

Trust를 바탕으로 다양성이 존중되는 뉴질랜드 호주의 교육제도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석곤 의원

지난 8월5일부터 8월14일까지 뉴질랜드 호주의 교육제도와 문화체험연수결과를 정리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근에 위치한 두 나라는 영국의 교육제도를 근간으로 편성되었고, 뉴질랜드는 13학년제 호주는 12학년제로 편제되었으며, 대학 진학시에는 각 나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을 서로 인정해주고 있었다.

먼저 뉴질랜드의 교육제도를 살펴보면,

뉴질랜드 어린이들은 만 5세에 초등학교 교육을 시작하며, 6년의 초등학교(Primary school)과 2년의 중학교과정(Intermediate school), 5년의 고등학교과정(College) 등 총 13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등학교 입학은 우리나라처럼 3월 일제 입학이 아닌, 만 5세가 되는 월요일에 입학할 수 있으며 교과서 없이 교사와 학교가 자율적으로 수업자료를 준비하여 학생을 교육시킨다.

초등학교의 반 편성은 두 학년을 한 반으로 묶어서 교육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아이들의 입학시기가 저마다 다르고, 보통 수학과 영어를 아이들 수준에 따라 분반하여 공부하기 때문이다.

인터미디에트 스쿨이라고 불리는 중학교는 한국과는 달리 초등교육 과정에 해당되며, 본 의원이 탐방한 ANI(오uckland 노말 인터미디에트 스쿨)는 우리나라의 초등6학년과 중학교 1학년 나이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곳이었다. 학년 당 14개 반으로 총 28학급이며 교육대 학생들의 교육실습을 하는 부속학교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 학교 역시 교과서 없이 정해진 교육과정에 의해 다양한 주제학습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 학교에서는 오전 11시부터 약30분간 교사 학생 모두 티타임을 실시하여 간식을 먹고 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매우 인상적이었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잠시 쉬면서 학부모들이 준비해 준 도시락 간

식을 먹는 모습은 학생들의 영양과 건강은 물론 학업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에는 1교시 후 쉬는 시간에 우유급식을 실시하거나 중간체육을 하는 학교가 많은데 이를 활용하여, 뉴질랜드 학생들이 누리는 휴식과 운동시간을 우리학생들에게도 도입해 보았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다.

뉴질랜드에서는 고등학교를 High School, College, Grammar School 등 여러 가지로 불리는데 이만큼 뉴질랜드 교육은 통일성 보다는 다양성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었다. 학생들의 과목 선택의 폭도 매우 다양하고 평가시에는 교사의 의견이 매우 존중되며 이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이의제기가 없었다. 학부모와 학생은 교사와 학교를 신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우리나라 교육현실에서 가장 부족한 신뢰도가 뉴질랜드 교육에는 기초에 자리잡고 있었다.

다음 호주의 교육제도를 살펴보면,

호주는 초등교육과정 6년(초등학교에 해당), 중등교육과정 6년 (중·고등학교 해당), 대학교 3~6년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학제를 가지고 있다. 중등교육을 마치고 대학 입학을 원하는 학생은 각 주정부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통과하여야 한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부터 대학과정 이전까지의 단계를 Junior School과 Senior School로 나누는데, 호주의 의무교육은 Junior School까지다. 2월초에 학기가 시작되고 11월말이나 12월초면 한 학년이 끝난다.

호주에는 약 40여개의 대학이 있으며, 퀸즐랜드의 Bond University와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의 University of Notre Dame을 제외한 모든 대학이 공립학교에 속해 있다. 각 대학들은 나름대로의 자치성과 전문성을 지니고 있으며 서로간의 격차는 크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학기는 보통 2월에서 11월까지의 2학기제로 2월 학기가 정식 학기의 시작이고, 7월 입학도 일부 과정에 있어서 허용하고 있다.

대학 진학을 원하는 학생만 고등 과정에 진학하며, 11~12학년을 다니면서 대학 입시 준비를 한다. 호주인들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10학년을 마친 뒤 취업을 위해 졸업한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아시아 인구 증가에 따른 교육 경쟁이 심해져서 그런지 대부분 대학으로 진학하고 있다.

뉴질랜드 호주의 교육제도를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자면,
두 나라 공통적으로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재산으로 관광산업이 발달하여 호주는 국민 1인당 GDP가 5만2천불이고 뉴질랜드는 4만2천불의 넘는 선진국이다. 복지가 발달한 국가의 특징이자 단점인 경쟁력과 효율적인 교육활동은 찾아보기 어려웠지만 두 나라의 사회 환경과는 아주 잘맞는 교육제도라고 생각되었다.

두 나라의 교육제도를 도입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생각해보았다. 맞지 않은 옷을 입은 형국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인간의 능력이 곧 자원인 나라이다. 불안한 남북관계와 부족한 자원을 둔 불리한 위치에서 선진국의 위치로 도약시킨 일등 공신은 교육이라 할 수 있다.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교육제도를 미국대통령 오바마도 인정하고 극찬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교육은 현재 많은 곳에서 질타를 받고 있는 현실이다. 지나친 입시경쟁으로 인한 교육의 파행 운영이 가장 큰문제로 교육활동 평가시에 교사의 기준을 학부모와 학생이 신뢰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단기간에 이를 수는 없겠지만 두 나라처럼 신뢰의 문화가 형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들었다.

또한 이번 해외교육연수를 통해 충남교육에 반영하고 싶었던 점은 오전 티타임과 크로스컨츄리 시간이었다. 교사와 학생들은 오전 30분 정도 티타임과 운동시간을 통해 간식과 담화의 여유를 즐길수 있을 것이고, 운동을 통해 학업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번 해외교육연수를 통해 배운 가장 큰 두 나라의 교육 특징은 신뢰(Trust)와 다양성이었다. Trust를 바탕으로 다양성이 존중되는 뉴질랜드 호주의 교육제도는 매우 인상적이었으며 칭찬할 만 하였다. 그러나 그런 문화를 이해하되, 무분별한 도입보다는 우리의 교육현실에 맞게 받아들여야한다는 생각도 하였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선진교육제도를 다른 나라에 알려주고 싶다는 희망도 함께 갖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뉴질랜드 및 호주의 자유분방한 교육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송덕빈 의원

떠드는 학생들의 소리, 맨발로 실내외를 다니는 걸음, 카메라를 보며 들이대는 아이들, 정리되지 않고 복도에 널부러진 듯한 가방, 외부인에 대한 거부감 없는 얼굴들은 뉴질랜드 Auckland Normal Intermediate 학교의 첫인상이다. 학생들은 모두가 즐거운 얼굴이었고 또한 진지한 얼굴이었다. 한국과 확연하게 드러나는 차이점은 그다지 없었으나 소소한 부분에 있어서 한국과는 다르게 자유분방 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수업 형태에 있어서는 한국과는 매우 달랐다. 이학교의 수업의 형태는 교사가 주도하는 한국의 교육과정과는 다르게 학생이 학습의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어 가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자연과목에서 토마토가 자라는 것을 관찰하는 것을 학습의 목표로 삼은 A 학생은 토마토의 재배 전반에 걸친 것을 관찰 및 학습한다. 흙의 배합, 싹틔우기, 줄기자라기, 잎나기, 꽃피기, 수정되기, 열매 맺기, 열매 숙성등 토마토 성장 전반사항에 대하여 관찰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물이 학습의 완성이다. B학생은 감자, C학생은 고양이 등 다양하게 학생들이 선택하여 학습한다. 교육내용이 각 학생마다 다른 것이다.

또한, 특이할 만한 것은 공식적인 교과서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꾸렸한 교재도 없었다. 다만 이러한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배포되는 지침서만 있을 뿐이었다. 철저한 자기주도 학습이었다. 언 듯 보기에는 학생에게 맡겨 교사의 역할이 미미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실상은 학생 개개별로 발생하는 수많은

은 변수에 대한 설명과 상담을 해야 해서 교사의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호주에서는 한국의 유학하여 학업을 마친 만났었다. 한국에서 고등학교때 호주로 유학 온 이민자이다. 한국에서의 교육하고 호주교육의 큰 차이점은 바로 사교육이라는 것이다. 학교교육은 호주와 한국과의 학업량은 별반 차이가 없으나 방과후에 이뤄지는 학업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하루종일 공부에 맹진하거나 부담감을 안고 사는 한국의 청소년과는 다르게 뉴질랜드와 호주의 청소년들은 자유분방함이 배어있었다.

또한 뉴질랜드의 연수에 인상 깊었던 것은 학교장의 자리가 작은 자리 한켠을 차지 한다는 것이었다. 실무적인 업무량과 비례하여 책상을 배치한 것이다. 이를 미루어 볼 때 특유의 합리적인 습성이 묻어 났다. 뉴질랜드는 각종분야에서 우리나라보다 후진국이라는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학교교육의 시스템을 보면은 충분한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는 나라임에는 틀림없다. 농사는 일년을, 나무는 십년을, 교육은 백년을 내다보고 계획한다고 하니. 이 나라의 교육시스템을 곰곰이 살펴보면 100년후에는 우리나라를 뛰어넘는 교육 강국이 되리라는 생각도 들었다. 나라를 강하게 하는 것은 예전에는 무력이었지만 지금은 경제가 중요한 몫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힘은 교육임에 틀림없음을 안다. 우리나라의 교육시스템은 선택과 집중이 부족했고, 자율과 창의가 없으며, 일관성이 결여된 교육정책이 큰 맹점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뉴질랜드의 교육은 우리와는 다르게 여유와 자유분방과 문화와 결합된 교육을 하고 있으며 교육자에 대한 학생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호주는 땅이 넓어서 세계 최초로 원격교육을 실시한 나라이다. 통신 수단이 없었을 당시에 비행기로 교재와 과제를 주는 홈스쿨링이 시작된 나라이다. 경쟁이 없고 여유롭고 직업의 귀천의식이 없는 호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은 목수, 사윗감 끌지는 대학교수이다.

배움은 자기 직업선택과 출세의 수단이 된 우리나라와는 달리 배우는것에 열심히 적어 배우는 것에 대한 특별한 의욕이 있는 사람만이 공부를 하고 그를 사회에 환원하는 시스템이었다. 호주는 섬나라이기 때문에 동식물의 반출과 반입을 철저히 검역하고 있어 자국의 자연과 환경에 대한 애착이 배울만 한 점이였다.

뉴질랜드, 호주 연수를 다녀와서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유익환 의원

제10대 충청남도의회가 출범 한 지도 1년이 넘었다.

그 동안 많은 현안들로 인해 1년이 넘도록 교육위원회 의원님들 전체가 함께하는 국외 출장은 없었다. 2014년도에 해외연수를 추진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어려워 추진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다.

금번 여행은 뉴질랜드와 호주의 교육시스템을 확인하고 충남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의 8박 10일간의 공무국외출장이다.

사실 계획된 일정을 보니, 일정마다 학교 및 기관방문 등 공식일정이 거의 매일 적혀있어 부담이 되었다.

드디어 2015년 8월 5일 수요일, 인천에서 뉴질랜드 오클랜드공항으로 출발하였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오클랜드 직항노선이 개통되어 뉴질랜드까지 약 11시간이 소요된다니 꼬박 한나절을 비행기로 날아가는 먼 거리다.

뉴질랜드 북섬에 위치한 오클랜드 공항에 도착한 후 농산물과 음식물 반입 등 입국심사가 세계적으로 까다로운 입국수속에서 세관신고를 마치고 공항을 빠져나왔다. 남위 40도에 허리를 걸치고 있는 뉴질랜드는 면적이 남북한을 합한 것보다 1.2배 크지만 인구는 겨우 410만명이라고 한다. 북섬과 남섬 아래쪽에 제주도처럼 떨어져 있는 스튜어트 아일랜드 등 커다란 3개의 섬으로 되어 있고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어 북섬은 겨울에도 얼음이 얼지 않는 반면 남섬에는 빙하지대도 있다고 한다. 다음에 뉴질랜드 방문시에는 남섬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잠시 해 본다.

뉴질랜드라는 새로운 나라를 방문해서 인지 기내에서 잠을 설치 몸은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가볍게 하루 일정을 시작하였다. 첫 공식 일정으로 ANI-Auckland Normal Intermediate(중학교)를 방문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학교를 방문하는 기관마다 느낀 것은 학생들의 밝은 얼굴과 웃는 모습이 매우 인상 깊었으며, 우리 학생들처럼 공부에 찌든 모습은 아니었다. 더욱이 교장선생님과 학생, 교사와 학생 사이가 경직된 모습이 전혀 없이 농담하며, 어깨를 톡치는 등 우리나라 정서와는 많은 차이점을 느끼게 해 나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뉴질랜드의 목축업은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처음 이땅의 주인은 마오리족이었으나 영국과의 교역과 유럽인들의 이주로 이땅에 있는 모든 나무를 베어가고 남은 산에 궁여지책으로 목축을 조성해 만든 것이 현재의 뉴질랜드 목축업의 역사라는 이야기를 듣고 결코 아름답게만 볼 수 없는 풍경에 숙연해 지기도 했다.

우리는 8월 9일 뉴질랜드에서 호주시드니로 출발하였는데 그때가 마침 일요일이라 그런지 출입국 심사를 하는데 호주에서 1시간 30분을 기다려야 했다. 자국민들은 빨리 통과시키고 다른 나라사람들은 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것을 보고 씁쓸한 생각이 들었다.

호주도 뉴질랜드와 교육과정, 시스템 등은 별다른 것은 없었으나 남다른 것 하나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호주의 학교는 뉴질랜드와 달리 학교를 높은 철재 울타리를 치고 있다는 것이며, 학교에 들어가기가 매우 까다롭다는 것이다.

두지역 모두 다문화 학생들이 주를 이루고 살면서도 다문화에 대한 차별 없이 잘 융화되어 살고 있다고 한다.

뉴질랜드와 호주를 둘러보고 가장 크게 느낀 것은 넓은 땅에 인구는 적고, 천연자원은 풍부한 말 그대로 축복받은 땅이라는 것이다. 이

러한 축복속에 경쟁은 적고, 복지는 잘 되어 있다보니, 나라를 이끌어 갈 교육에 대한 여유로움이 느껴졌다. 그러면서도 첨단산업, 바이오, IT, 우주산업 등의 발전으로 국민소득의 상당부분을 노알티로 충당하고 있는 저력 있는 나라임에는 틀림없다.

이번 연수는 뉴질랜드와 호주의 교육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게 하였으나 한가지 중요한 것은 이 나라와 우리의 처지는 다르다는 것이다. 작은 땅, 천연자원 부족, 인구밀집 지역 등 먹고 살기 힘든 우리나라에 그나마 이 만큼 이라도 살 수 있었던 것은 교육의 힘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자부한다. 모든 것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실정을 파악해서 좋은 것, 우리에게 맞는 것만 선택적으로 선별해 적용 시켜야 할 것이다.

뉴질랜드와 호주를 다녀와서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종문 의원

참다운 정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참다운 교육이 필수조건이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정의와 부정을 판단하고 정의에 따르는 행동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무엇인지 옳다고 판단된 선택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자신과 타인의 삶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정의란 것이 가장 쉬운 말로 “착하게 살자”라고 한다면 착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교육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금번 출장을 통하여 선진 외국의 교육과정과 교육제도는 물론 교육에 대한 견문을 넓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에 호주 교육에 대하여 보고 느낀 점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호주는 환태평양 지역에 위치하면서도 서구적 삶의 양식을 지니고 있는 나라입니다. 또한 호주는 1966년 노벨 의학상 수상자를 비롯하여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을 정도로 높은 학문적 성과를 보유한 국가입니다.

호주의 교육제도는 초등학교 과정, 중등 과정, 전문대학 과정 그리고 정규대학 과정으로 구분됩니다.

호주의 학기는 우리나라와 비슷하여 2월과 7월에 시작하는 2개의 학기가 있으며, 한 학기는 각각 두 개의 Term으로 이루어져 부활절 휴가가 있는 4월에 Term2가 시작되며, 10월초에는 Term4가 시작됩니다.

또한 호주의 교육제도는 관련 산업체들의 학교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 이는 학문적이면서 동시에 실질적인 노동력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학교 교육과 산업체 연수제도의 긴밀한 연계의 필요성을 강조하

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호주의 초, 중, 고등학교 교육은 각 주 정부가 관장하지만 교육의 기본적인 체계는 연방정부 만든 국가 협정에 따릅니다.

호주의 학교교육은 학교다양화를 학교 내 프로그램 다양화와 학교 간 다양화로 유형화할 수 있습니다. 호주의 전통적인 학교 체제는 학교 간 다양화의 특성을 보이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학교 내 프로그램 다양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학교다양화 정책은 학교 간 다양화의 기초위에 학교 내의 다양화를 추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학교 간 다양화 방안은 학교 간 차이에 따른 교육적 불공평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제기될 수 있으므로 공평성의 원리에 따라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섬세한 정책적 대안이 함께 추진되고 있다 합니다. 또한 평생학습 사회의 심화와 인간의 수명 연장 등과 같은 사회적 변동 현상은 일반 학생들에게도 기술교육 혹은 직업교육의 확대를 필요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호주의 교육과정 개발 과정 및 주요 특성을 검토해 보고 교육과정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탐색해 장점을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접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호주의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사례에서 우리나라 교육과정 체제에 주는 시사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논의해 볼 필요가 충분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번 국외출장은 교육에 대한 폭 넓은 식견이 필요하다는 것과 의정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매우 높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매우 뜻 깊은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해 봅니다.

뉴질랜드, 호주 해외 공무연수를 다녀와서 ...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서형달 의원

지구상의 파라다이스라 불리는 남태평양의 섬나라, 마지막 지상낙원이라고 불리는 반지의 제왕 무대가 된 천연자원림의 뉴질랜드와 캥거루가 뛰어노는 천혜자원의 호주로 우리나라 학생들의 어학연수장소, 우리나라의 이민국가로 문화체험과 교육기관 방문을 8월5일부터14일까지 여행목적이 아닌 연구. 연수목적으로 한국에서 8400Km나 떨어진 해외를 교육위원회 의원 일행은 나가게 되었다. 본 의원은 교육정책, 복지정책을 더 연구하고자 미리 출발하여 7월31일 11.30시간의 고달픔도 잊게해 지리한 몸을 달래는 비행기에서 보았던 일몰은 바다나 산으로 올라오는 태양과 달리 구름위해서 보는 일몰은 구름아래부터 붉게 물들이며 지구가 둥글다는 명제를 증명하듯 색다른 일몰의 모습을 보여줬고 남반구에서는 반대방향의 달도 눈길을 끌게 하면서 기다림 끝에 뉴질랜드 오클랜드 공항에 8월1일 아침 도착하였다. (8월6일 뉴질랜드 오클랜드 공항에서 교육위원회 의원과 해외에서 미팅함)

과거 9대의회의 시절 해외 연구. 연수목적을 준비할 때와는 사뭇 다른 느낌으로 많은 자료준비를 하게 되었다.

뉴질랜드, 호주는 교육, 환경, 의료, 복지면에서 우리와는 다른 면을 가지고 있으며 본 의원은 외국의 우수교육제도 및 정책, 학교운영 및 교수, 학습사례등, 선진외국의 공교육과정, 운영실태 및 정보수집 기회를 통한 교육의 발전 방향 모색 및 업무혁신 역량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평소에도 여러나라의 교육환경과 교육과정에 관심이 많은 분야였고 나름대로 연구 했던 분야여서 인터넷을 통한 자료수집이나 선 경험자에게 많은 자문과 자료를 받아 검토하면서 더욱 애착을 갖고 준비하면서 뉴질랜드, 호주를 직접 경험하고 안내 받으며 보면서 연구목적 길을 떠나게 되었다

뉴질랜드의 환경과 교육정책

뉴질랜드를 이야기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것이 있다. 국토가 우리나라의 두배인 뉴질랜드의 인구는 400만명 그 넓은 땅에 서울인구의 5분의1이 살며 1인당 소유하는 땅의 평수는 40만평 이상씩을 소유하고 산다 그런데 양은 3,200만마리, 소가 420만마리, 사슴이 170만마리가 넘다보니 사람보다 동물을 만나기가 훨씬 쉬운 곳이 바로 뉴질랜드이며 젓소들은 정해 놓은 울타리를 돌아다니면서 자유롭게 풀을 뜯어 먹는다

농장 주인이 사료를 먹이는 일이 없이 100% 자연방목으로 생활 한다 또한 구제역 살처분 이란 상상할 수 도 없는 일이다

뉴질랜드를 생각하면 자연환경이다. 자연환경을 파괴 하지 않고 원시 그대로 보존하고자 국가적 의지를 알 수 있어 끝없이 넓은 풀밭들이 평화롭게 펼쳐져 있고 그것을 지켜가며 나라를 경영하는 청렴한 정치가의 나라! 여자들의 천국! 어딜가나 아기들이 많은 이유는 복지정책이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직업이 없어도 아기만 많이 나오면 생활을 할수 있는 것이 참 인상적이었다. 또한 지구상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나라로 날자 변경선에 가장 가까우며 섬머 타임시 우리나라와 4시간 의 시차를 보이고 있다.

뉴질랜드 이민의 대부분이 유학을 왔다가 눌러 앉은 경우가 많았다. 이유는 사회보장제도가 잘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녀교육과 노후문제는 걱정이 없으나 연소득이 6,000\$이 상 넘어서면 39%가 소득세로 징수되고 있고 누진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으로 빠져 나가는 금액이 커지므로 오후3시면 가게문을 닫고 가족이 함께 지내는 경우가 많다 한다고 한다

뉴질랜드 교육정책의 기본목표는 개인의 창의성과 전인교육을 중시하는 영국식 교육제도를 밑바탕으로 하여 초등학교 때부터 학생스스로 주제를 선정하여 연구자료를 찾고 토론을 하여 문제점과 해결책을 찾아내는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게 활발한 자기표현과 독창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 개인의 인격과 적성을 있는 그

대로 유지하면서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과 같은 창의적이면서도 실생활에 응용 할 수 있는 실용적인 철학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가 있었다.

대한민국 교육은 어떠한지 생각해 본다!

우리교육 역시 전인교육을 목표로 다양한 교육정책을 펼치고 있다. 아침9시부터 오후4시까지(학년별로 시간이 다름)짜여진 일정 속에서 우리교육의 지표처럼 전인교육을 할수 있을까. 그속에서 창의적이며 개인의 적성을 존중한 다양한 교육활동이 전개될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우리교육 현장을 둘러보면 아직도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며 우리가 늘 외치는 전인교육이 우리들만의 리그는 아닌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었다.

뉴질랜드의 학교교육은 보여주는 외적인 부분보다 내적인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 형식을 중요시 하는 우리문화와는 달리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실질을 추구하는 하는 평소 그들의 모습이 생활방식이라 생각하니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역시 본 받아야 점이라고 생각한다#

뉴질랜드의 학교를 방문 했을때

- 1)학생들이 학교에 들어가면 외부인이 마음대로 들어갈수 없게 해 놓은 것이 었으며.
- 2) 학교시설보다 교육내용(학습활동)이 중요시 하였음
- 3) 학급당 인원수는 25명 내외로 2~3명의 교사가 담임역할을 하여 생활 과 교과 등을 나누어 지도하여 우리 교육에서도 고려해 보아야할 사항 이다.

교과 과목외의 교과는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학교에서 교사와 협의를 거쳐 교육전체가 균형을 맞추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사는 공고를 통해 학교장의 책임하에 학교에서 채용 하여 임용한다

학교의 모든교육과정 교사의 임용권 마저도 모두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교장의 책임제로 운영한다.

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이 끝나면 고등학교 이후는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대학까지 가서 공부를 할수 있도록 학문의 장이 되어 있으며 우리와 다른 교육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대학을 가지 않아도 되는 사회체제와 진학을 원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과 사회보장제도가 있기 때문에 각자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실업학교에 들어가 직업을 준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가정교육을 중요시하여 가족단위로 여행을 많이 하며 우리나라와 다르게 아버지도 교육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아이 양육도 부모 모두 공동의 책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다.

나라에서는 3명이상 자녀를 낳았을때 지원을 다양하게 하여 아이 양육에 어려움이 없어서 인지 한 가정에 3명이상의 자녀를 다니는 모습이 눈에 많이 띄었다.

가정에서는 체험위주의 환경교육을 시키고 부모와 함께 여행을 자주하는 모습은 아이들이 직접 체험할 기회를 많이 주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경험이 풍부하게 되어 자기 의 소질을 찾을수 있도록 하는 점이다

초등학교에서의 교육은 학습량을 매우 적게하고 읽기. 쓰기. 수학 등에 중점을 두며 창의적 재량 활동에 해당하는 체험활동에 적극적인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다

초등학교는 5번째 생일이 되는날 입학하게 되기 때문에 입학날이 재 각각이다 그러나 1~2학년 시기는 유치원 교육의 연장으로 놀이와 게임위주로 느슨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학습 부담이 전혀 없다고 한다

(한국에서 유학온 학생들은 어린시기에 부모와 이별한 경우 마음의 상처를 안고 실패할 확률이 크게 때문에 대학생이 되어 맨손으로 유학 오는 것을 권한 다고 하며 어딜가나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유학을 다닐수 있음)

유아교육시스템

뉴질랜드 유아교육기관 에서 교육을 받은 것처럼 가정에서 어머니가 자녀를 가르쳐도 학업성취가 인정되는 교육 시스템은 어머니에게 자격을 주

고 지원해 주어 가정에서도 유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교육은
어린시기 부터 밖으로 내몰지 않을수 있는 교육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
되었다

#한국에서의 유아교육은 열풍은 불고 있지만 체계적이지 못하여
우왕 좌왕하는 시점에서 선진국의 유아교육제도가 궁금함#

오클랜드 시내의 학교와 관공서 방문지역

1 Anl-Auckland Normal Intermediate- 오클랜드 중등학교로 2년 과정의
학교로 뉴질랜드 교육부에서도 인정하는 수준높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학문적 성취 및 전략적사고와 학습에 대한
글로벌 시각을 가질수 있도록 지도하며 다양한 종류의 스포츠와 문화
적 활동을 제공 한다고 한다.

2 LYNMORE PRIMA교 SCHOOL-린모어 초등학교는 타우랑가로 가는

메인 로드 에 위치해 있으며 600-650명의 5살부터 10살까지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높은 수준의 교육기회를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학습동기가 부여 될 수 있도록 환경을 또한 제공한다. 그밖에 린모
어 초등학교는 다양한 목적실을 갖추고 있어 학습활동이 여러 가지
도서실, 컴퓨터실, 각종 교습실, 제2외국어 교실 등 다양하게 활용되
고 있으며 또한 체력단련실, 수영장, 과학과, 미술을 위한 공간 까지
생겨 아이들에게도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활동을 할수 있도록 학교에
서 적극 도와주고 있다. 야외에서는 나무를 심고 기르는 그 과정을
배우는 등 각종 야외에서의 교육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고 한
다.

호주의 환경과 교육정책

호주는 원래 영국의 죄수 유배지였다 세계형 범죄자 1200명을 11척에
나누어 이주 해온 곳이 오늘의 호주이다

인구2500만, 면적 남한의 77배, 소1억2000만마리, 양1억6000만마리, 캥
거루4억만 마리의 나라 호주는 태어나서 죽을 때 까지의 행복을 책임
져 주는 복지정책을 가지고 있다 아이가 태어나면 국가는 16세까지

라는 이름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고 18세가 되면 부모로부터 독립할수 있는 독립자금이 지원된다

최대소득의 48%까지 세금으로 납부하는 대신 교육비와 의료비에 대한 걱정은 없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국가에서 18세 이하에게 1인당 1000\$와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1200\$가 지급된다고 하니 우리로서는 부러울 수 밖에 없다.

철저한 개인주의로 남들이 봐주지 않는데 돈 들일 필요가 없어 자동차나 집 외모에 특별한 신경을 쓰지 않는 검소한 생활을 한다. 대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9달 동안 일해서 번 돈으로 3달 동안 여행을 다니고 죽을 때에는 전 개산을 사회에 기부한다. 국가는 국민에게 걱정거리를 제공해주지 않으며 몰라도 될것은 가르쳐주지 않는다. 우리나라처럼 차안에 연탄을 피워 죽었다는 뉴스로 “베르테르” 효과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물며 마약방지가 아니라 마약주 사실이 있어 음으로 감추어진 것이 아닌 정화의 목적으로 이용 된다고 한다

7개의 교도소중 6개는 최고의 인간대우로 다시는 들어오지 않도록 교화 되도록 하는 국가이며 호주는 220년동안 12번의 노벨상 수상, 2차 세계 대전때 페니실린을 발명, 피를 수혈할 때 혈액형과 관계없는 양의 피를 수혈하는 기술개발, 유방암과 자궁암 백신에 성공해 40세 이전의 여자는 1.2.3.차에 걸친 세 번의 주사로 암에서 해방 .QN뿐만 아니라 블랙박스 발명으로 노벨상의 영광과 함께 많은 로얄티를 받고 있으며 인큐베이터는 캥거루가 아기를 뱃속에 넣고 6개월 동안 키우는 것에서 착상해 만들어 노벨상을 받았다 넓은땅, 살기좋은 기후, 실업수당만으로 삶의 영위가 가능한 완벽에 가까운 복지정책 경쟁이 없어 자칫 도태되기 쉽다고 생각 할 수 있지만 얕잡아 볼 수 없는 만만치 않는 나라임에 틀림 없다

#호주의 모든 시스템은 교육정책을 포함해서 사회복지제도의 큰 틀에서 사회 시스템이 가정을 중심으로 실 생활과 관계된 실제적인 노작활동이 부모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러한

#노작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자연스레 노작교육으로 연계하여 아이들은 기초 도야의 이념 중 기술적 능력을 길러주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지적, 도덕적 능력 도야의 기반이 가정에서 다져지고 있었다.

#호주의 초등교육에서도 가정에서 행해지고 있는 노작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으로 실시하고 있었으며 이는 중, 고등 교육으로 가면서 점차 뚜렷하게 움직이고 있어 이뤄지고 있었다.

호주를 비롯한 선진국의 교육정책에서도 알수 있듯이 생활과 밀접한 노작 교육을 일반 교과와 접목한 통합교육을 통해서도 학력을 신장시킬수 있다는 것을 알수가 있다.

호주 일정을 통해 느낀 점은 삶의 질적 문제와 교육문제는 서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였다. 삶의 질적 안정을 통해서 모든 부모가 가정에서의 자녀교육을 다른 이의 손에 맡기지 않는 것은 아이들이 다양한 노작교육을

생활과 접목해서 할수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도 국가정책의 변화를 통해 삶의 질적 안정과 더불어 교육의 질적 변화를 모색할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느꼈다.#

호주는 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가 많고 또 권위가 있어서 많은 상류 사회의 학생들이 사립학교를 거친후 배출된 인물들이 후에 나라의 중책을 맞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과연 공교육이 상실된 호주의 교육이 바람직 한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다

호주의 교육제도

호주의 학교는 크게 공립과 사립학교, 카톨릭학교로 나뉘며 4학부로 나뉘 실시하고 있다 10년간의 의무교육을 받고 2년간의 중등교육을 마친후 대학에 진학하게 된다

대학진학을 원하지 않을 경우 10년의 의무교육 기간이 끝난후 직업전문학교(TAFE)로 선택 하여 진학할수 있다 이곳에서 실질적인 전문지식과 기술을 배워 사회에 바로 진출 할 수 있다.

학교 수업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교과서가 없다는 점은 단순히

지식을 암기해야 하는 과목도 없고 시험도 없다

단 정부에서 5.7.9.학년 학생들에게 수행능력 평가시험(NAPLAN) 을 치르게 해 학업 수행 정도를 평가하고 각 학교의 수준을 파악한다. 수업은 정부가 정해 놓은 학년별 커리큘럼 안에서 맡아 수업한다. 또한 전시회, 과학관, 동물원 등 교실밖 수업을 많이 하는데 이때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부모들이 지원하여 따라간다. 오로지 대학을 위해 지식위주의 학과 수업을 위주로 하는 한국의 교육제도와는 달리 체험학습 위주의 경험학습을 주요시하는 자율성과 창의력을 키워주는 교육현장이 필요 하다

호주는 k-1(유,초등) 7년과 센컨드스쿨(중등교육) 6년중 4년은 무상으로 의무교육으로 실시하고 남은 기간 2년과 대학교육은 유상교육으로 이루어진다.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무상교육이 이루어지는 반면 유학생들은 엄청난 교육비를 지급하며 교육받고 있으며 호주에서도 부유층들은 자녀들에 대한 교육열이 매우 높아 보여 우리나라 처럼 자녀들에 대한 교육열이 매우 높아 많은 사교육비까지 지급하며 교육시키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호주시민들은 교육비 걱정 없이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있었고 요트, 수영, 럭비, 골프처럼 자녀들의 특기 신장 및 체험중심의 사교육 모습이 참 좋아 보였다

건강과 재능을 키워 주는 예체능 수업

좋아하는 과목은 체육. 음악에 관심과 소질이 있는 아이들에게 악기를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

개인의 다양한 능력을 존중해주는 학교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제히 시험을 보고 나서 뽑인 상위 2.5%의 학생들은 호주정부가 마련해 놓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PEAC)에 참여 할 수있다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간편한 복장으로 운동을 하는 학생들이 많게 보였다.

#학교에서의 점심식사는 교실 내에서가 아닌 교실밖에서 자유롭게 먹고 있습니다

#방학을 이용한 학생들의 체험활동(부모들과 여행이나 체험활동이 많은나라라 볼 수 있음), 이 당연시 되기 때문에 체험활동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학기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호주는 정부차원에서 인종차별주의 배격정책을 철저히 시행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며 학교에서의 반인종차별 담당 교직원이 있어서 인종차별을 당한 학부모나 학생들을 교장. 교직원이 도와주고 있어 우리나라의 다문화 교육과 가정을 바라보는 모습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수있다

초,중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학교가 1년에 두 번씩 학교의 특성에 따른 행사를 갖는데 “학교 발표의날” 행사로 학생 각자가 가장 잘하는 주제를 골라 발표에 참여한다 이러한 활동은 학생회를 중심으로 지역봉사활동. 학교의 오락 프로그램 담당. 학생복지문제등을 수행하고 학교는 적극 지원 한다고 한다

시드니 시내의 학교와 관공서 방문지역

1- University of Western Sydney- 대학은 시드니 서쪽 에스턴 시드니에 위치한 대학교로 현재2개의 지역본부와 8개의 지역 캠퍼스가 있으며 세계적 수준의 대학교로 연구에 대한 강점과 혁신적인 교육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이 대학은 세계상위 100위 신흥 대학교 중 하나로 선정된 대학이라고 설명 한다

2 -EVANS HIGH SCHOOL- 고등학교는 NSW주 블랙타운에 위치한 다문화 남녀공학 학교로 지역사회 안의 다양한 문화를 가진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주고자 하였으며 학생수는 729명(남56%여44%)이다

3 -NSW 교육청 방문 프레젠테이션-

뉴 사우스 웨일즈 주(NSW)의 교육시스템의 관리 국가정책의 수행 등 교육에 관한 모든 업무를 수행 하는 교육기관으로 유아교육과 고등 교육정책 에서 비정부학교 정책까지 다양한 분야의 교육정책을 연구하며 시행하는 곳이다

4 -St.Charbels School- 유치원-12학년 과정의 사립학교는 1984년 로마카톨릭 교회 의 한 종파로 동방의식을 채용하는 마론 종파에 의

해 설립 되었으며

우리나라의 유치원 격인 Kindergarten 학년으로부터 12학년 까지 초.중. 고 의 모든 과정을 한곳에 설립한 카톨릭 사립학교이다#

5 -NSW 주립 도서관 탐방=

뉴 사우스 웨일스 주립도서관(State Library of New South Wales)은 주 정부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으로 2개의 건물로 나뉘어 있는데 유럽양식의 건축물은 미첼도서관으로 국제적으로 알려진 호주와 태평양 지역연구자료와 특히 뉴사우스 웨일즈주 에 대안 각종자료들이 풍부하며 현대식 건물인 덕슨 도서관은 참고도서관 에는 다양한 주제에 관한책 . 잡지. 보고서. 통계자료등이 보관되어 있다고 설명 하였다

6 시드니 교육청 (공식적으로 가지 않았음)

호주 초등학교의 70%는 주정부가 운영하는 공립학교 이고 30%는 주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사립학교로 구성 되어있음. 유치원 과정이 1년으로 초등학교의 부설로 설치되어있어 실제 총 교육 과정은 7년이 된다 OC(Opportunity Class) 라는 제도가 있어 4학년때 영어 및 지능을 테스트하여 성적이 우수한 아동들을 따로 모아 만든반이 지역별로 몇개의 학교마다 설치되어 있어 5.6학년 2년 동안 한교사 지도 아래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실제 OC Class 출신들의 우수 공립학교 진학률은 매우 높다고 한다

연수후기와 시사점

비행기로 왕복 만 하루가 되는 먼 여행이었지만 떠나기 전의 가슴설레임 으로 뉴질랜드의 북섬으로 가는 비행기 안의 시간도 또 호주에서 출발하여 집으로 돌아오는 안도감과 뿌듯함으로 피곤은 저만치서 올 줄 모르는 이번 국외 공무연구 연수는 앞으로의 교육위원회서 질의. 답변 재충전의 기회가 되는 아주 좋은 연수였다.

지상최고의 복지국가 아름다운 나라로 불려지는 뉴질랜드와 호주는 아름다운 자연과 풍부한 자원을 축복받았고 그 축복을 인간의 손으로 가꾸고 해택으로 누릴 줄 알며 후손들을 생각하여 보존 할 줄 아는 영리한 사람들로 낙농 및 목축, 기타 농업 등 1차 산업이 전체 산업

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청정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입국시 검역이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는 현실을 보았다. 우리나라도 저탄소 녹색성장 교육을 좀 더 철저히 함으로써 우리의 자연환경도 유지하고 아울러 전 세계에 널리 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연 친화적인 두 나라를 방문 하고 나서 선진 공교육의 국외 연수는 두나라에서 우리에게 부족한 점과 그 나라의 장점들을 눈으로 보고 듣고 느끼면서 인간 존중교육과 폭력이 많지 않고 자연과 동물을 사랑하며 교육목표가 건전하고 즐겁고 진지한 모습이 보였으며 특히 왕따와 체벌이 없고 명문대 가기위해 공부에 목숨 걸지 않는 분위기와 자신의 건강한 삶을 지킬 줄 아는 이 두나라를 보면 우리나라는 지칠줄 모르게 치열하게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현실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느끼고 있다 두 나라는 18세 이상이 되면 부모님을 의지하지 않고 철저히 자립적으로 공부하고 미래를 기획하면서 활기차게 도전하고 노력하는 모습 들이 기억에 강하게 남아 우리현실을 비교 생각 한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눈에 담고 왔지만 정작 마음 한켠이 무거운 이유는 우리나라의 현실로서는 따라 갈수 없는 그들의 교육환경 언제가는 다시 뒤돌아봐야 할거이고 다시 기본으로 되돌아가야 할길 빨리 그때가 왔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자원이 없어 머리로만 승부 한다는

후진국형 선진국교육이 아닌 선진국형 교육강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보면서 이번 연구 목적은 깨끗한 자연환경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복지정책과 교육으로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는 호주와 뉴질랜드에 이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본다.

귀국시 뉴질랜드와 호주에서 겪었던 까다로운 절차는 간데없고 그야말로 초 스피드하게 무사 통과되는 우리나라 입국절차에 가슴 한편이 서운 해 졌었다 비교 할수 없을 정도로 신속하게 처리되는 능력이야 자랑 할만 하지만 우리나라 전역을 휩쓸며 막대한 피해를 입혔던 구제역 등은 철저한 검역없이 들여오는 농산물 하나,물품 하나로 비

롯된 것일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과 환경을 생각하는 나라 투명한
아름다움이 있는 나라 뉴질랜드와 호주가 괜시리 있는 것이 아니다
환경과 자연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후손에게 물려줄 이땅을 어
떻게 보존할 것인가 이 아름다움을 간직한 아껴둔 땅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것이다

또한 나의 교육철학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주요한 핵심은
교육방향과 관점을 진일보 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서 정책국.

행정국 업무 보고시 교육개발에 힘을 쏟도록 표출 되어질 것이다 .

공무국의 출장을 다녀와서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장기승 의원

한국에서 뉴질랜드로 이민 또는 유학온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수 학생들이 뉴질랜드 교육에 만족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뉴질랜드는 한국에서는 학생들에게 줄 수 없는 푸른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 놀며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뉴질랜드의 초등학교는 만 5세 생일날에 학교에 입학합니다. 한국과 같이 3월 초에 일률적으로 입학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2월부터 12월까지 5세의 학생들은 자기 생일에 맞추어 입학합니다.

그래서 1학년은 처음 1개 반으로 시작하여 점점 더 늘어가는 것이 뉴질랜드 학교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 한국은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하여 다른 학생들에게 뒤지지 않도록 늦게 학교에 보내려고 하는 경향도 있었는데, 뉴질랜드는 12월에 자기 자녀를 학교에 입학시켜도 크게 개의치 않는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입학시키면서 거창한 입학식은 없지만 학교 교장 선생님과 아이의 입학과 관련하여 학부모와 학교 시스템 및 학교 생활에 대하여 1시간 정도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에서 아이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라 합니다.

뉴질랜드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2년, 고등학교 5년, 총 13년간의 의무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 반은 20-30명 정도이고, 수업은 아침 9시에 시작하여 오후 3시까지 이어집니다.

뉴질랜드 초등학교에는 교과서가 따로 없습니다. 뉴질랜드의 초, 중학교는 뉴질랜드 교육부에서 정한 National Standard에 따라 읽기, 쓰기 등에서 일정한 수준 학생들이 따라 올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이런 모든 교육은 교과서 없이 교사가 스스로 연구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을 가르치는 커리큘럼은 각 학교의 교장 선생님과 교사들이 얼굴을 맞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학교 교육의 속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 특징은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 능력을 계발하고 더 나아지기 위하여 교사가 세부적으로 지도하는 교육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입식 교육이 아닌 스스로 깨우쳐 알아가는 교육을 말합니다.

뉴질랜드 교육은 전인 교육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교과서 위주의 주입식 교육이 아닌 자율적인 수업방식을 채택하여 학생들의 창의력을 최대한으로 높이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뉴질랜드의 학제는 일반적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되어 있어 우리나라 학제와 유사합니다. 하지만 입학시기와 각 학년별 학제는 우리나라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유치원을 만 4세까지 다니며, 만 5세가 되면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각자 만 5세가 되는 때에 입학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생일에 따라 입학시기가 다릅니다. 초등학교는 6년제이며, 중학교는 2년제, 고등학교는 5년제입니다. 학년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5학년까지 13학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교육과정은 반드시 따라야할 의무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국가 교육과정은 교육부가 발간은 하고 있지만 단위학교에서는 기본 원칙과 방향은 준수하면서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상당 부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교육은 시험 잘 보고, 취직 잘하고, 돈 잘 버는 사람들만이 대접을 받는 교육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풍토와 의식이 바뀌어서 시험만 잘 보는 사람이 아니라 인격을 갖추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줄 아는 사람다운 사람을 높이 평가하는 사회가 되어야 교육도 본래의 숭고한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교육이 흔들릴지라도 교육 본래의 숭고한 목적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드니 뉴사우스웨일즈 주립도서관을 다녀와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2015. 8. 5부터 8. 14까지 8박 10일간 대양주 2개국(뉴질랜드, 호주)을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공무국외출장시 의원님들과 동행·방문하여 외국의 새로운 교육제도와 교육정책, 시설 등을 둘러 보았다.

모든 연수 일정에 학교와 교육청 방문이 알차게 계획되어 진행되었지만 특히, 연수 마지막 날 방문한 시드니 뉴사우스웨일주 주립도서관(STATE LIBRARY OF SOUTH WALES)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뉴사우스웨일주 주립도서관은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의 맥쿼리 스트리트의 셰익스피어 광장 근처에 위치한 뉴사우스웨일즈 주 정부(NSW)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으로 1826년 ‘Australian Subscription Library’라는 이름으로 개관하였으나, 1869년 NSW 주 정부가 5,100파운드에 매입한 후 2차례 개명을 거쳐 1975년에 이르러서야 현재의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도서관은 2개의 건물로 나뉘어 있는데 정면에서 보았을 때 좌측에 위치한 과거 유럽 양식의 건축물은 미첼(Mitchell)도서관으로, 우측에 위치한 현대식 건물은 디슨(Dixson)도서관이라 불리우고 있었다.



미첼도서관 내부



디슨도서관 내부

<David Scott Mitchell과 Sir William Dixon의 이름을 딴 도서관 건물>

이 도서관에는 약 470만여점의 다양한 종류의 도서 및 문서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유 자료의 99.9%가 지하 8층 규모의 저장소에 보관되어 있어 자료를 요청하면 20분에서 40분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자료 보관 시스템과는 달라 놀랐다.

유럽 양식의 건축물인 미첼도서관의 겉모습을 보며 역사적인 건축물을 도서관으로 활용한다는 것에 대단하다는 느낌으로 받았다. 특히, 80세가 넘는 고령의 자원봉사자가 도서관 이곳저곳에 묻어있는 도서관 역사에 대해 설명해 주어서 더욱 인상 깊게 느껴졌다. 미첼도서관 로비 바닥에 콜롬버스가 탐험을 할 때 만든 지도가 대리석에 그려져 있었고, 지도가 아주 정확하진 않았지만 그 옛날 이런 지도를 그려가며 항해를 했다는 것이 참 대단한 열정이었다고 생각했다.

셰익스피어의 책과 간행물들이 전시 보관된 셰익스피어 룸과 우리나라 강당 보다 큰 3층 이상의 서가(자료 보관소) 및 열람실 등을 보며 오래된 건축물을 현대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우리도 도입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현대적 건물인 디슨도서관은 미첼도서관과 서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하였으며, 넓은 창 옆으로 열람석들이 놓여져 있었으나 우리나라 처럼 칸막이 식이 아닌 6인식의 넓은 책상 구조로 되어 있었다.

이곳 헬프 데스크(ASK)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수는 총 24명, 12명이 한조가 되어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교대로 움직이며 도서관을 찾는 사람들의 질문 하나 하나에 응답해주고 자료를 찾아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5개의 창구별로 2명의 직원이 이용자들을 일대일로 상대하기 때문에 도서관을 처음 이용하는 사람도 손쉽게 자료를 구할 수 있다. 이용자에게 일대일로 서비스를 해주는 모습이 우리나라 도서관과는 사뭇 대조

적이고 도서관을 공부방이 아닌 자료 제공이 주목적인 교육의 연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운용 체제를 우리도 서서히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호주의 교육은 도서관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한 디슨도서관의 행정직원이 생각한다. 초등학교 때부터 스스로 자료를 찾아 분석하는데 익숙한 호주 학생들에게 도서관은 없어서는 안 될 정보 창구이고 호주의 도서관은 어떤 지역이든 그 지역에서 가장 쾌적한 장소에 세워지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한다. 뉴사우스웨일즈 주립도서관도 시드니 도심 한복판 정중앙에 위치해 있어 지하철, 버스 등 모든 교통 수단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심공원과 붙어 있어 시민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도서관을 찾기도 한다고 한다.

외국의 도서관은 처음 방문인데, 새삼 느끼는 것은 유서 깊은 건물 자체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고, 그러한 역사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었다. 큰 규모, 멋진 디자인 등 인상에 남는 것도 많았지만 그래도 통로공간을 전시공간으로 활용한 것과 전시를 보러 온 사람도 온김에 책을 읽을 수 있게 복합적으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동선을 유도한 점은 시사 한 바가 크다.

충남의 사서직 공무원들이 한번쯤은 호주 여행시 들러 봐도 전혀 손색없을 도서관이었으니 혹시 시드니에 갈 기회가 있으면 한번 들러보셔도 좋을 듯 하다.

參考-訪問國家 現況

뉴질랜드(New Zealand)



1. 뉴질랜드의 자연환경

뉴질랜드는 두 개의 큰 섬인 남섬과 북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이다. 우리나라의 태백산맥과 같은 웅장한 남알프스 산맥이 남섬에 길게 뻗어 있고 때문지 않은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여 많은 관광수입을 올리고 있는 아름다운 나라로 레저스포츠의 천국답게 온갖 종류의 여가를 즐길 수 있다. 깨끗한 강과 비옥한 목초지로 목축이 발달하였고 선진화된 교육으로 많은 외화를 벌고 있다. 이 나라는 약 1000년 전 새로운 땅을 찾아 별을 따라왔던 태평양 원주민들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그들을 마오리, 원주민말로 ‘탕가타 웨누아’라 부른다. 1840년 영국정부대표들과 500여명의 마오리 족장들은 와이탕이 조약에 서명하여 뉴질랜드는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으며 마오리족은 영국왕실의 보호와 그들의 땅, 숲, 수산자원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다.

이 나라는 세계 최초로 여성이 투표권을 갖은 나라이며, 하루 8시간 노동제도를 도입한 국가이고 사회복지제도를 실시한 나라이다.

유명한 뉴질랜드인 중에는 에베레스트산을 최초로 정복한 힐러리, 원자를 최초로 분리한 리더퍼드, 예술분야에서는 피아니스트인 마이클 휴스턴, ‘피아노’로 잘 알려진 영화감독인 제인캠피온 등이 있다.

2. 일반현황

- 세계적인 복지국가, 2009년도 부정부패도 세계 제1위로 선정

3. 뉴질랜드의 역사

뉴질랜드를 처음으로 찾은 유럽인은 1642년 남섬 서해안에 도착한 네덜란 타스만이였다. 그는 이곳을 고향 젤란트의 이름을 따서 노바제란디아라고 명명하였으며, 뉴질랜드는 바로 이 말의 영역이다. 그러나 타스만은 상륙하지 않고 떠났으며, 그후 1769~1777년 J.쿵이 여러 차례 두섬을 답사하였다. 이어 1814년 런던에서 선



인구	414만 1,000명(유럽이민 72%, 마오리원주민 14%, 기타14%)
면적	270,534km ² (남한의 2.7배)/북섬 11.6km ² , 남섬 15.1km ²
수도	웰링턴
종교	성공회, 기독교, 카톨릭,
국가형태	입헌군주제, 단원제
정부형태	영국식 의원내각제
공식언어	영어, 마오리어
독립연월일	1907. 9. 26
화폐단위	뉴질랜드 달러(New Zealand dollar/\$NZ)
국가	God Defend New Zealand
한국과의 시차	+3(매년 10월~익년 3월 섬머타임 기간 +4)

교사가 와서 그리스도교 교화를 시작하였다. 그 무렵 이곳은 뉴사우스웨일스(오스트레일리아)의 식민지였으며, 고래와 바다표범 잡이의 기지로 이용되고 있었다. 1840년 W.홉슨경과 마오리족 사이에 와이탕가 조약이 체결되었으며, 마오리족은 보호를 받는 대가로 영국 국왕의 주권을 인정하였다. 이해부터 뉴질랜드회사, 오타고협회, 캔터베리협회 등을 통하여 각지에 이민이 시작되었으며, 1882년의 냉장선 취향으로 오지에서도 농목업이 발전하였다.

그러나 영국의 식민이 진행됨에 따라서 마오리족과 파케하(백인을 의미하는 마오리어)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으며, 1843년~1870년까지 2회에 걸쳐 마롱리전쟁이 일어났다. 이에 대하여 그레이 지사는 마오리의 반영감정 완화에 크게 힘썼고, 식민지 회의에 마오리족 대표를 참가시켜 영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하기로 했기 때문에,

1870년부터는 인종분쟁이 끝나고 마오리족의 영국화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마오리와의 공존관계는 다른 식민지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현명한 해결방법이어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그 후 뉴질랜드는 개척이 진전됨에 따라 1907년 영국의 자치국이 되었다가 1947년 독립하였다. 제1,2차 세계대전 때에는 영국 본국과 함께 연합국의 일원이 되어 참전, 허락하였다. 또한 작은 나라이면서도 다른 나라에 앞서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정책을 펼쳤다.

4. 교육과정 현황

-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무상 의무 교육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16세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총 13학년제, Year11까지 의무 교육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6년[Year 1-6]	2년 [Year 7,8 or Form 1~2]	5년[Year 9~13 of Form 3~7]

- 공립 고등학교 3학년부터 마지막 학년까지 매년 뉴질랜드 교육기관인 NZQA에서 주관하는 NCEA(National Certificate Of Education Achievement) 3단계 시험, 단계마다 80점 이상의 학점을 인정받아야 학력 평가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으며 이 자격증을 획득하지 못할 경우 다음 학년진학 어려움. 대학교 진학은 반드시 NCEA LEVEL 3를 통과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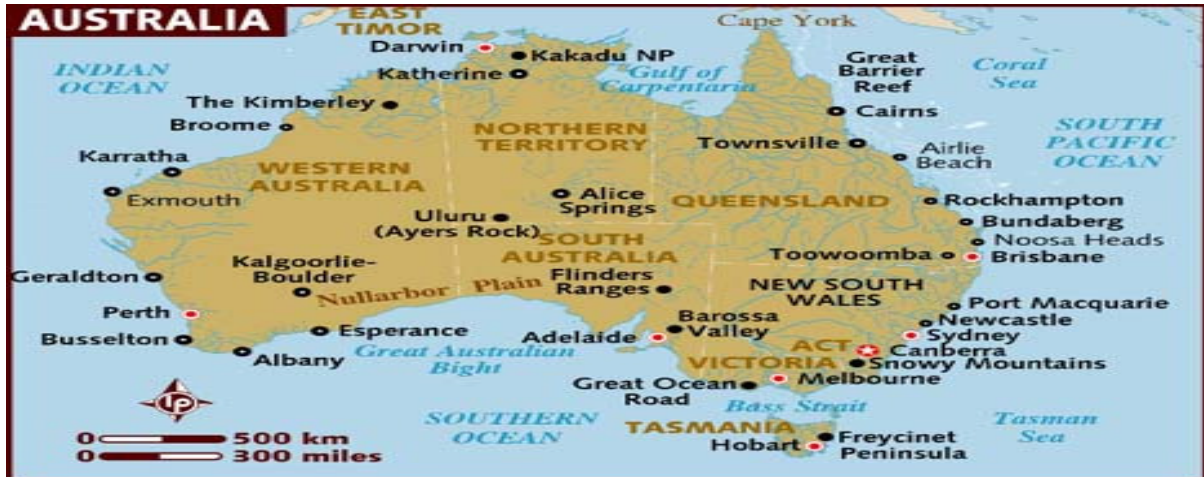
5. 평생교육현황

- 평생교육정책 추진에 필요한 평생교육 행정체제를 튼튼하게 확립하였다.
뉴질랜드는 일련의 교육개혁을 통하여 학습이 평생에 걸치는 것이며 평생학습이 국가발전의 동인이 된다는 패러다임을 받아들여 뉴질랜드 자격인정청(NZQA)과 고등전문교육위원회(TEC)를 설치하였다.
- 스킬 뉴질랜드는 현실경제에 부합한 자격체계 및 인력양성에 기여 ‘스킬 뉴질랜드’는 TEC가 그 운영을 주도하고 있으며, 일터학습과 산업체 훈련에 있어서 정부,산업체, 무역연합 등 3자간의 협력하에 그 효과를 더욱 높이려는 것이다

호주(Australia)



1. 일반현황



인구	약 2,060만명 (80%정도가 영국 아일랜드계 이주민의 자손)
면적	768만 2,300km ²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제외한 미국 면적과 같음)
수도	캔버라
종교	가톨릭 26.4%, 성공회 20.5%, 그외 그리스도교 20.5%
행정구역	호주본토 및 타즈매니아 섬등을 주로 하는 6주 2직할지구
독립연월일	1901.01.01
국가형태	영국여왕을 국가원수로 하는 입헌군주제 (정치형태 : 의원내각제)
기후	북쪽은 열대지방, 남쪽 및 타즈매니아섬은 온대지구에 속함. 호주의 57%가량은 사막과 스텝기후

2. 호주의 자연환경

호주는 전체 면적의 약80%가 해발 500m미만이고, 해발 1000m이상의 땅은 전체의 2%정도로 세계의 대륙 중에서 평균 고도가 가장 낮다.

호주의 지형은 크게 동부의 산지, 중부의 낮은 지대, 그리고 서부의 고원지대로 나뉜다. 동부지방에는 동해안을 따라 그레이트디바이딩, 호주 알프스 산맥이 뻗어 있다. 중부지방에는 머리강과 달링강이 흐르고, 그 유역에는 대찬정 분지가 있다. 서부 고원은 전체 면적의 약 2/3를 차지한다. 대부분 암석 사막으로, 그레이트빅토리아, 그레이트샌디사막 등이 있다. 호주의 해안선은 비교적 단조롭다. 북동부해안에는 거대한 산호초인 그레이트배리어리프가 해안선과 평행하게 발달되어 있다. 호주대륙은 남회귀선이 통과하며, 건조 기후가 널리 나타난다. 따라서 국토는 대부분 사막과 초원이다. 북부해안지방은 열대기후, 남동부지방과 남서부지방은 온대기후를 나타낸다.

3. 호주의 역사

호주는 오랫동안 유럽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17세기경에 네덜란드 사람에 의해 발견된 적이 있지만, 그때는 대륙이라는 것도 모른 채 탐험이 끝났다. 호주대륙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1770년 영국의 탐험가 제임스 쿡에 의해서이다. 그 후 영국은 호주를 식민지로 정하고 1788년 본국의 죄수 736명을 이곳에 이주시킴으로써 개척이 시작되었다. 19세기 중엽에 대규모의 금광이 발견되자 자유 이민이 급속히 늘어났고, 경제력도 크게 성장했다. 내륙지방의 개척과 금광의 발견으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자, 호주정부는 ‘백호주의’ 정책을 수립하여 유색인의 유입을 막아왔다. 이 백호주의는 1970년에 해제되었다.

4. 교육관련 현황

○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현황

- 학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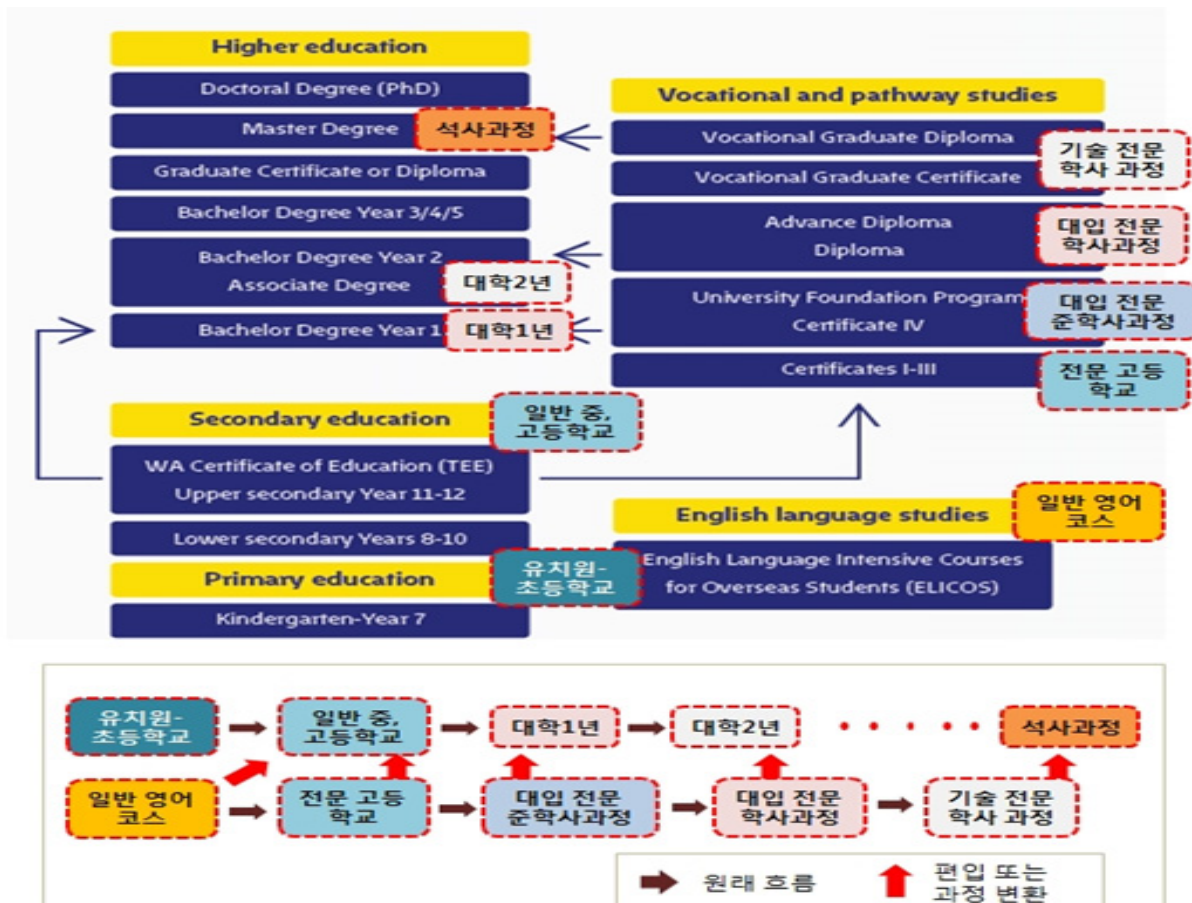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전문대학	정규대학
1학년~7학년	8학년~12학년	40주~2년	3년~6년 (대학원 1년~2년)

- 1학년부터 10학년까지 의무교육이며, 대학입학 희망자는 12학년까지 이수하여야 하고, 직업과정 희망자는 10학년까지 이수하면 졸업이 가능하다

- 주정부가 운영하는 공립학교와 주로 종교재단이 운영하는 사립학교가 있으며 정부가 이들을 모두 관리 감독하고 있으며
- 학기는 1월말 또는 2월초에 시작하여 12월초까지 운영하고, 4학기(1월, 4월, 7월, 10월)로 나뉘 외국학생이 입학할 경우 적합한 시기를 선택하여 입학이 가능하다

○ 학위구조

구분	교육영역
대학과정 (University study)	• 취업 준비와 더불어 지적 능력 배양을 목표로 하고 있음
직업교육과 연수과정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 산업체와 기업체로의 취업 준비가 주된 목적인 정규 과정
대학예비과정 (Foundation Studies)	• 유학생들이 호주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예비 과정
영어연수과정(ELICOS)	• 특정한 목적(회화, 진학, 취업준비)을 위한 영어 실력 향상이 목표
초·중·고등 과정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 고등 교육 과정으로의 진학을 위한 호주의 의무 교육과정[취학 연령은 한국과 동일(8세~19세)]



5. 평생교육 현황

- 직업훈련과 성인교육이 통합된 형태
 -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에 대한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직업교육, 훈련 영역의 국가 전략계획 중점 개발하였고,
 - 국가가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자금을 공급하며,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 호주의 평생교육은 평생직업 능력개발로써 그 중심은 TAFE라고 불리는 기술계속대학 시스템과 성인지역사회교육(ACE)과 인문교양교육은 주로 호주성인 교육협회(ALA)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긴밀한 연계, 모든 주에는 TAFE, ACE, ALA가 있으며 각주의 교육부에서 자금지원, 관리 운영하고 있다